

# NYPI YOUTH REPORT

vol.4 2009. 10

발행일 | 2009.10.10

발행인 | 이명숙

편집인 | 이창호

발행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114 교총빌딩 9/10층

전 화 | 2188-8860 팩스 | 2188-8869

디자인 | 김성희 [www.kimsunghee.com](http://www.kimsunghee.com)

인 쇄 | 엘에스컴

홈페이지 | [www.nypi.re.kr](http://www.nypi.re.kr)



GO TO THE WORLD! GO TO THE FUTURE!

- 04 |  **미래세대 리포트** 다양성시대의 글로벌 인재\_ 강지원(변호사)
- 08 |  **조사통계 리포트**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조사 Ⅲ\_ 최인재
- 18 |  **정책제언 리포트** 청소년 정책개발의 과학화\_ 이경상
- 23 |  **해외동향 리포트** 24 중국\_ 청소년 센터 내 특별교육활동에 대한 인식과 정책적 함의  
\_ Lu De-Ping (China Youth University for Political Science)  
40 일본 -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른 청소년 노동시장의 변화와 대응전략  
\_ Yuki Honda (University of Tokyo)
- 40 |  **청소년 리포터** 48 세상은 청소년 장인들에게 주목하고 있다\_ 이수빈(한국외대부속외고)  
54 노력, 인재가 되기 위한 첫 번째이자 마지막 발걸음\_ 이준아(민족사관고등학교)
- 60 |  **칼럼** 글로벌 인재양성에 앞서 글로벌역량강화를\_ 윤철경
- 62 |  **NYPI NEWS**

# 다양성시대의 글로벌 인재

변호사, 전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 | 강지원



초학

음악

IT

수학

수학

문학

예술

항공

기술

과학

무용

프

미국의 젊은 대통령 오바마는 2009년 3월 미국의 교육 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미국의 어린이들은 매년 한국의 어린이들보다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1개월이나 적다. 새로운 세기의 도전은 학교교실에서 학생들이 더 많은 시간 공부할 것을 요구하며, 한국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도 여기 미국에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즉각 한국에도 전해졌다. 그런데 한국인의 반응은 특이했다. 대부분의 한국인은 한국의 어린이들이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학교공부에 매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학교교실은 물론 그 연장선상에서 학원이나 과외공부등 사교육에 지나치게 혹사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한국에는 “남의 떡은 커 보인다” 는 속담이 있다. 미국인에게는 한국 어린이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바람직하다고 보였는지 모른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한국 어린이들이 어렸을 적부터 상급학교 입시를 위해 지나치게 혹사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입시지옥” 이라고 까지 부른다.

우리는 여기에서 미국처럼 공부를 적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아니면 한국처럼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질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 나의 대답은 간단하다. “적절하게 해야 한다” 는 것이다.

지금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함께 고민해야 할 청소년 문제 중의 하나는 과제는 ‘공부의 분량’ 에 관한 것이다.

공부란 지나치게 적게 해서도 안되고, 지나치게 많이 해서도 안된다. 지나치게 적으면 지식빈곤에 처하게 되고, 지나치게 많으면 공부이외의 다른 역량, 예컨대 정서발달이나 체력향상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 시간에도 어떤 국가 또는 지역에서는 청소년들이 교

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일부 지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물론 북한도 마찬가지다. 어린이·청소년들은 태어날때부터 일정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기성세대들의 책임이다.

반면에 지나치게 과잉교육을 하는 것은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어린이·청소년들은 충분히 잠을 자고 충분히 운동을 하며 충분히 여가를 누릴 권리도 타고 났다. 그런데 이를 방해해서 잠을 못자게 하고 운동을 못하게 하고 여가를 누리지 못하게 한다면 이는 감옥이나 지옥과 다를 바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는 ‘공부의 종류’ 에 관한 것이다.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어떤 공부를 하게 할 것인가의 문제다.

지금 한국에서는 획일적인 입시공부가 강요되고 있다. 입시과목이 정해져 있고, 그 과목에 대한 성취도에 따라 성적을 매기며, 대체적으로 그 성적에 따라 대학에의 입학 여부가 결정된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자의 80%~85%가 대학에 입학한다. 세계적으로 그 유희를 찾아보기 힘든 경우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자신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입시과목을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또 성취도 평가는 주로 정답을 맞추는 필기시험에 의존하기 때문에 토론이나 발표를 통해 창의적인 발상을 하기보다 기존의 지식을 달달 외우는 수법에 기대고 있다. 이는 불행이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날 때 모두 다르게 태어났다. 그리고 모두 다르게 성장한다. 생김생김이 다르고, 마음 씀씀이가 다르고, 목소리도 다르다. 그중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각자의 소질과 적성이 모두 다르다는 사실이다. 사람은 태어날 때 모두 다른 달란트를 타고 났다. 그리고 그 재능 안에 자신의 삶의 소명이 있다. 그것을 발

견하는 것이 바로 그의 꿈을 발견하는 것이다. 우리는 청소년들에게 꿈을 가지라고 말한다. 그런데 그 꿈은 어디에 있는가. 꿈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내 자신안에 있다. 나의 달란트 안에 있는 것이다. 나의 달란트를 발견하고 그것을 개발하고 발휘하는데 자신의 길이 있고 그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바로 그의 꿈인 것이다.

우리는 사랑하는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소질과 적성 안에서 자신의 꿈을 발견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발견하고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는 공부를 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모두 다른 청소년들을 모두 똑같은 존재로 취급해 획일적인 교육을 강요한다면 어떠할까? 한마디로 최악이다. 청소년들의 달란트개발을 방해하고 정서를 피폐하게 하며 자존감을 떨어 뜨리게 하는 것이다.

나는 청소년기인 10대 후반에 반드시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공부를 하게 해야 한다고 믿는다. 왜 10대 후반인가. 사람은 어린이 시절부터 달란트 발견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지만, 드디어 '이것이다' 하고 감지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때이기 때문이다. 이때는 신체적인 성장발육이 거의 완성되는 시기이고 뇌세포도 가장 증가한 시기이며 정서적으로도 사춘기를 경과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세상에 나서는 준비를 마치는 이 시기야말로 자신만의 길을 찾기 위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찾아야 하는 시기인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모든 고등학교의 특성화를 제안해 왔다. 예컨대 골프고등학교, 수학교고등학교, 문학교고등학교, IT고등학교, 항공고등학교등과 같이 모든 고등학교를 전문분야별로 특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중학교 3학년때 어떤 고등학교를 가야할지를 선택해야 하므로 이에 따라 중학교 3년 과정은 그야말로 적성의 탐색기가 된다. 나아가 그 여파는 초등학교에 까지 미치게 된다. 이렇게 고등학교를 전문분야별로 선택하게 한다 해도 그 후 학교의 전학은 자유롭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의 발견은 그만큼 실험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근대교육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모든 고등학교를 특성화한 나라는 없다. 그러나 이는 한시도 늦출 일이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급변하는 시대에는 더욱 그러하다.

지금 인류문명은 IT의 발달로 지식정보에 대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거의 없어지고 있다. 정보의 확대는 새로운 정보의 창출을 자극하고 과거보다 훨씬 더 큰 창의성과 상상력을 요구한다. 국제적으로도 장벽은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다. 다문화가족은 늘어나고, 세계시장은 하나가 되어가고, 세계정부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오늘날의 청소년은 이런 환경속에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청소년은 과거의 사농공상이라는 서열적 신분개념에 얽매이지 않는다. 저마다 타고난 개성을 개발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나의 길'을 찾고자 한다. 그런데 아직도 기성세대들은 청소년들에게 과거의 고정관념을 강요한다. 이는 잘못이다. 반발을 가져올 뿐 아니라 장래까지 망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우리는 '공부이외의 과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사람의 발육성장에 관하여 지·덕·체 3육(育)을 목표로 지칭해 왔다. 옳은 말이다. 다만 이 3가지는 구태여 순서를 고려한 것이 아니라, 어순상 '지'를 가장 앞세웠다는 느낌을 줄 수 있었다.

그래서 도산 안창호선생께서는 이를 ‘덕·체·지’ 로 바꾸어 부르셨다. 당시 사회상에 비추어 볼 때 올바른 덕성의 함양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이를 나는 오늘날의 한국실정을 반영해서 ‘체·덕·지’ 로 바꾸어 부르려고 한다. ‘체’ 를 강조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요즘 한국청소년들은 하루종일 책상앞에 앉아 공부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다. 아니면 컴퓨터 앞에 앉아서 대부분의 여가시간을 보낸다. 영양의 섭취로 체격은 커졌지만 체력은 점점 떨어졌다는 보고도 발표되고 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는 말도 있다. 우리는 지금도 영양섭취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후진국의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한다. 동시에 한국의 잘못된 체력관리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이 글로벌시대에 우리의 사랑하는 청소년들에게 과연 무엇이 시급한 일인지를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④

---

4) 다음사이트를 참고. [http://www.unesco.or.kr/front/business/business\\_01\\_view.asp?articleid=277](http://www.unesco.or.kr/front/business/business_01_view.asp?articleid=277)



조사통계 리포트

#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조사 I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최인재

---

1) 본고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8년도 고유과제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조사 III'의 일부를 재구성한 것임.

## 1. 서론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각종 사회지표(social indicators)는 정부의 정책수립에 기초가 되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청소년 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위해서는 청소년 각 정책영역에 대한 청소년들의 현재 상태와 변동추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올바른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지표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지표(youth indicators)는 청소년들의 변화양상을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필요하고 유용한 연구주제이다.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개발의 특징적인 점은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이나 유해환경 등 부정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청소년지표들과는 달리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발달과 성공적인 성인기로의 이행을 촉진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개발되었다는 점이다. 이 지표는 2003년도부터 지표개발의 이론적 토대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2006년도에 결과부문 영역의 타당화 작업을 거치면서 전체적인 틀이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조사 I’의 3년차 연구라 할 수 있다. 한국청소년발달지표는 3년간의 지표개발과 2년간의 주·객관적 자료 수집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이론적 및 경험적 내용들이 축적되었다.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는 총 100개 지표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83개는 객관적 지표항목이고, 17개는 주관적 지표항목이다. 83개의 객관적 지표는 전문조사기관, 정부기관 및 통계청 등에서 발간하는 원천통계에서 추출한 데이터를 기초로 지표항목에 맞게 재구성하여 제시하였으며, 17개의 주관적 지표는 실제 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이 주관적 지표는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로 청소년들의 정의적 특성, 인지적 특성, 사회적 역량, 시민적 역량, 진로 및 직업적 역량 등 총 5개의 핵심영역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100개의 지표항목 중 실제 조사를 통해 수집된 17개의 주관적 지표를 중심으로 조사결과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 2. 조사개요

이 조사는 전국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총 6,305명의 학생들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표집방법은 중·고등학교를 먼저 표집하고 다시 해당 학교 내에서 학생들을 표집하는 2단계 표집전략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표집틀(sampling frame)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소장중인 교육통계연보를 활용하였다.

〈표 1〉 응답자 분포

구분		빈도(명)	%
성별	여학생	3,114	49,39
	남학생	3,191	50,61
학년	중1	1,091	17,30
	중2	1,058	16,78
	중3	1,069	16,95
	고1	1,067	16,92
	고2	1,054	16,72
	고3	966	15,32
학교구분	인문계고	2,746	43,55
	전문계고	341	5,41
	중학생	3,218	51,04
		6,305	100

표집기준은 모두 세 가지 표집기준—학교유형별(일반계, 전문계), 성별(남, 여), 지역별(서울, 광역시, 시·군-경기/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을 동원하여 중학교, 고등학교 각각 15개(총 30개) 학교를 재학생수 기준 인구비례(PPS)로 선정하였다. 표집된 학생들의 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조사내용은 2006년도에 개발된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결과부문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의 정의적, 인지적 특성과 사회적, 시민적, 진로 및 직업 역량 실태를 파악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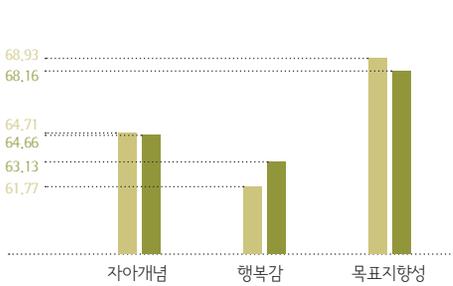
### 3. 조사결과

이 절에서는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조사 III의 일환으로 실시된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의 결과부문에 대한 결과를 요약·제시하고 주요결과에 대해 논의하였다. 조사결과의 제시방법은 2007년에 조사된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조사 II의 조사결과를 2008년도 결과와 함께 제시함으로써 총 5개 영역 17개 발달지표 영역에 대한 2년간의 변화추이와 발달수준을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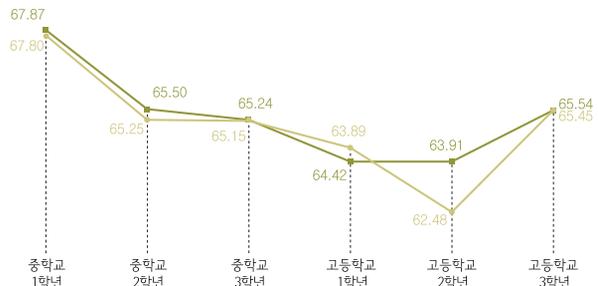
#### 1) 정의적 특성

##### ① 정의적 특성의 하위차원별, 학년별 및 기타변수별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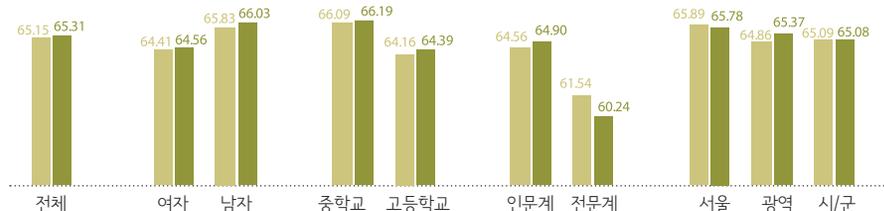
정의적 특성은 자아개념, 행복감, 그리고 목표지향성의 세 가지 하위영역을 측정하는 총 11개의 세부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의 정의적 특성의 하위차원별, 학년별 및 기타변수별(성별, 연령별, 계열별, 지역별) 조사결과는 다음 <그림 1~3>과 같다.



[그림 1] 정의적 특성-하위차원별



[그림 2] 정의적 특성-학년별



[그림 3] 정의적 특성-기타변수별

② 분석결과 요약 및 논의

정의적 특성에 대한 2008년도 조사결과를 보면 정의적 특성의 세 가지 영역 가운데 목표지향성(68.16)이 다른 변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는 2007년도 결과와 비슷한 결과이다. 자아개념, 행복감, 목표지향성의 점수를 모두 합한 정의적 특성에 대한 학년별 결과를 살펴보면, 조사대상 가운데 중1 청소년들의 점수(67.87)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년이 증가하면서 낮아지다가 고2부터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고3(65.45)의 경우 중2(65.5)의 정의적 특성 점수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정의적 특성에 대한 기타변수별(성별, 연령별, 계열별, 지역별) 결과를 살펴보면, 남자(66.03)가 여자(64.56)보다, 중학생(66.19)이 고등학생(64.39)보다 그리고 인문계(64.9)가 전문계(60.24)보다 높았고, 지역별 비교에서는 서울지역이 다른 지역들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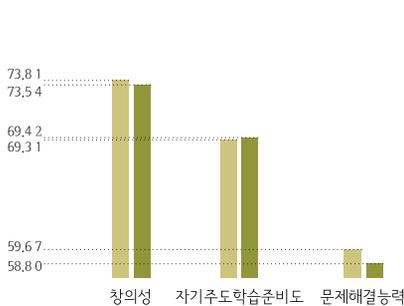
이상의 결과를 놓고 볼 때 먼저 정의적 특성의 하위차원별 분석결과에서 청소년들의 목표지향성과 긍정적인 자아개념, 행복감의 수준이 높지 않으며, 2007년과 대비했을 때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청소년들의 정의적 특성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승적으로 변화된다는 발달의 일반적인 원리를 정확하게 따르지는 않지만, 청소년들의 생각과 행동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Carnegie Council on Adolescent Development, 1989; Pittman & Irby, 1996). 따라서 청소년들의 정의적 특성이 보다 긍정적으로 발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인 관심과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둘째, 학년별 분석결과를 보면, 정의적 특성의 전체적인 평균점수는 중학교 1학년이 가장 높으며, 그 이후 학년이 증가할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또한 남자 청소년에 비해 여자 청소년들의 평균점수가 낮았으며, 인문계 고등학생 보다는 전문계 고등학생의 평균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의적 특성의 긍정적인 발달을 위한 전략과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성별, 계열별 차이를 고려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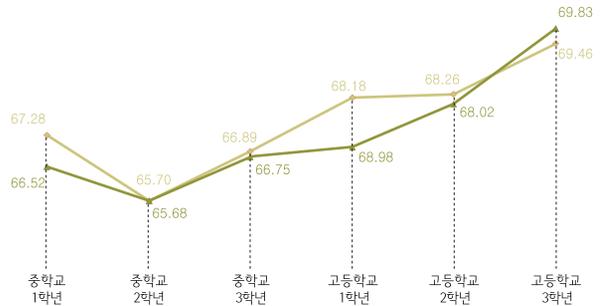
2) 인지적 특성

① 인지적 특성의 하위차원별, 학년별 및 기타변수별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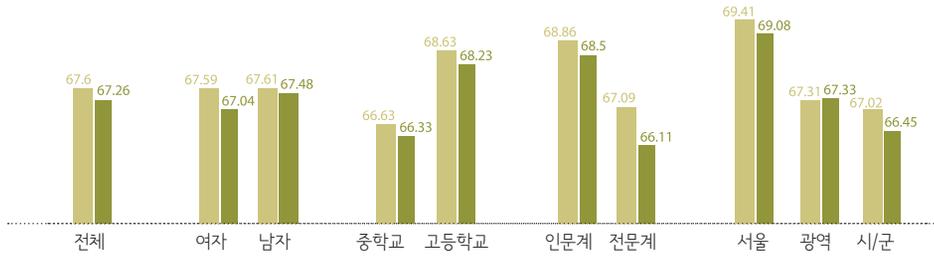
인지적 특성은 ‘인지적 측면에서 청소년들이 갖추어야 할 능력, 재능, 태도의 복합체’로 정의되며 창의성,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학습준비도 등의 하위 영역을 측정하는 총 13개의 세부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한국청소년개발원, 2005). 청소년의 인지적 특성에 대한 분석결과는 아래 [그림 4~6]과 같다.



[그림 4] 인지적 특성-하위차원별



[그림 5] 인지적 특성-학년별



[그림 6] 인지적 특성-기타변수별

## ② 분석결과 요약 및 논의

인지적 특성에 대한 2008년도 조사결과를 보면, 인지적 특성의 세 가지 영역 가운데 창의성(73.54)이 다른 변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2007년도 결과와 같은 양상을 보였다. 인지적 특성의 하위변인들인 창의성, 자기주도 학습준비도, 문제해결능력 점수를 모두 합한 인지적 특성에 대한 학년별 결과를 살펴보면, 중1의 점수가 중2보다 다소 높았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연령이 증가할수록 점수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기타변수별 결과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았고,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높았으며, 인문계가 전문계보다 서울지역이 광역시나 시/군 지역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2008년 인지적 특성영역의 전체적인 평균점수는 2007년과 비교했을 때 다소 낮아졌는데, 인지발달은 청소년기의 핵심적인 발달과업 중의 하나로 청소년기에 비판적 사고능력과 창의력, 문제해결기술 등을 활용하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청소년들의 학업성취도와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적응력을 높이는데도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하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인지적 특성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달되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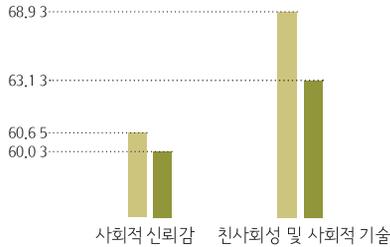
둘째, 인지적 특성의 전체 평균점수는 학년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는 사고과정이 점진적·순차적으로 보다 복잡해지고 세련되어지는 인지발달의 일반적 특성과 일치되는 것으로 바람직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문계고에 비해 전문계고 학생들의 점수가 낮게 나타났으며,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에 비해 광역시와 시/군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문계고 학생들과 광역시·시/군지역의 학생들의 문제해결능력과 자기주도 학습능력, 창의성 개발에 대한 관심이 보다 더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셋째, 인지적 특성의 하위영역 중 창의성과 자기주도학습 준비도의 평균점수가 '보통수준' 이상을 보인 반면, 문제해결능력은 낮은 점수 분포를 나타냈다. 이는 청소년들의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상대적으로 더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특히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지고 다변화되어지고 있는 사회에서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을 통한 문제해결능력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생활기술(life skill)이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문제해결에 필요한 지식, 정보, 기술, 태도 등과 같은 기능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문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장단기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기본적인 마인드를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과 프로그램들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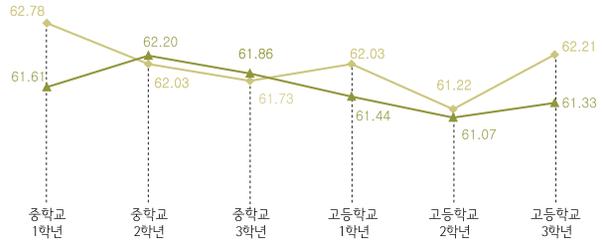
## 3) 사회적 역량

### ① 사회적 역량의 하위차원별, 학년별 및 기타변수별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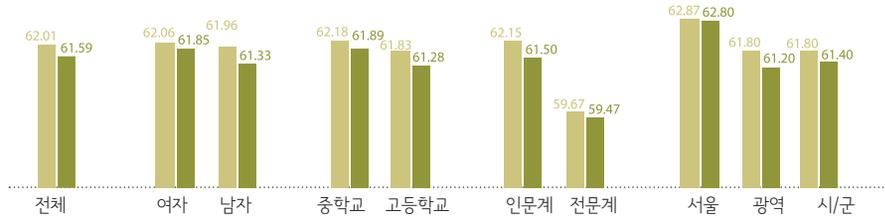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이란 ‘청소년들이 사회적 신뢰감을 형성하고, 친사회적 성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고, 이를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지향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한국청소년개발원, 2005). 사회적 역량은 사회적 신뢰감과 친사회성 및 사회적 기술 등 2개의 영역을 측정하는 총 11개의 세부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7] 사회적 역량-하위차원



[그림 8] 사회적 역량-학년별



[그림 9] 사회적 역량-기타 변수별

## ② 분석결과 요약 및 논의

사회적 역량에 대한 조사결과 친사회성 및 사회적 기술(63.13)영역이 사회적 신뢰감(60.03) 영역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2007년도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사회적 신뢰감은 2007년도에 비해 .62낮은 점수를 보였고, 친사회성 및 사회적 기술의 경우는 5.80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사회적 역량에 대한 학년별 점수 분포는 중1(61.61)에서 고3(61.33)까지 큰 차이가 없는 점수분포를 보였다. 기타변수별 결과에서도 여자(61.85)가 남자(61.33)보다 높았고, 중학생(61.89)이 고등학생(61.28)보다 높았으나 점수 차이는 크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사회적 역량의 전체적인 평균점수는 학년이 증가하더라도 크게 향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의 사회적 신뢰감과 친사회적 기술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긍정적으로 변화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문계고 학생들 보다는 전문계고 학생들의 점수가 낮게 나타났으며,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에 비해 광역시와 시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사회적 기술과 사회적 신뢰감이 보다 긍정적으로 발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 여건 조성과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문계고 학생들과 광역시·시군지역의 학생들의 친사회적 기술과 사회적 신뢰감을 향상시키는데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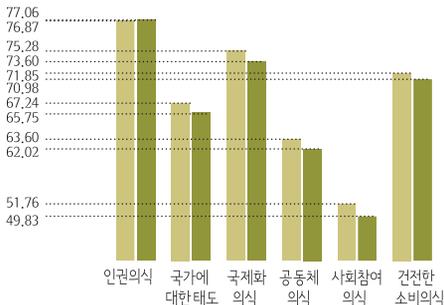
둘째, 사회적 역량의 하위영역 중 친사회적 기술은 평균 63.13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사회적 신뢰는 평균 60.03점으로 친사회적 기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의 사회적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신뢰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상대적으로 보다 더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청소년들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해 가지는 태도가 향후 사회적 적응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이 한국사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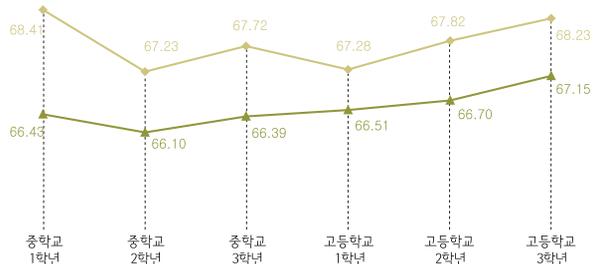
#### 4) 시민적 역량

##### ① 시민적 역량의 하위차원별, 학년별 및 기타변수별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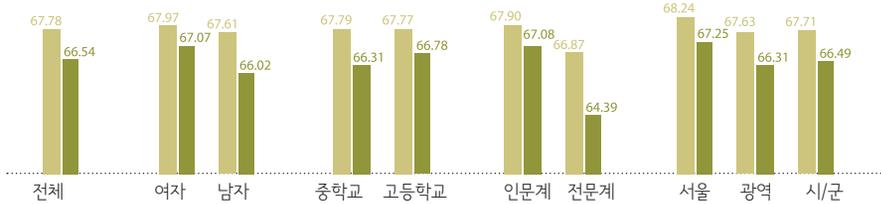
시민적 역량은 특정한 공동체의 구성원, 즉 ‘시민’ 이라는 지위에서 요구되는 자질을 의미한다. 시민적 역량의 구성은 인권의식, 국가에 대한 태도, 국제화 의식, 공동체 의식, 사회참여의식 및 건전한 소비의식 등 6개의 하위 영역을 측정하는 총 17개 세부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0] 시민적 역량-하위차원별



[그림 11] 시민적 역량-학년별



[그림 12] 시민적 역량 -기타 변수별

##### ② 분석결과 요약 및 논의

먼저 시민적 역량의 각 하위변인들의 점수를 비교분석한 결과에서는 인권의식의 점수(77.06)가 다른 변인들의 점수보다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국제화의식(73.60), 건전한 소비의식(70.98)순이었다.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것은 사회참여의식(49.83)이었으며, 전체적인 점수 분포의 양상은 2007년도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다음으로 각 하위변인들의 점수를 합산한 시민적 역량에 대한 학년별 결과를 보면, 대체로 학년이 증가할수록 완만히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시민적 역량에 대한 2008년 기타변수별 분석결과에서는 전체적으로 볼 때 2007년도 조사보다는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변수별 점수 분포양상은 대동소이하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2008년도의 결과는 2007년도 결과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는데, 청소년기에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태도를 발달시키는 것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현대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필요로 하는 생활태도와 행동양식을 갖춘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매우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성별 분포를 보면, 여학생들에 비해 남학생들의 점수가 낮게 나타났으며, 인문계고 학생들보다는 전문계고 학생들의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에 비해 광역시와 시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시민적 특성에 대한 전략을 마련할

때 상대적으로 여학생과 전문계고 학생, 시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해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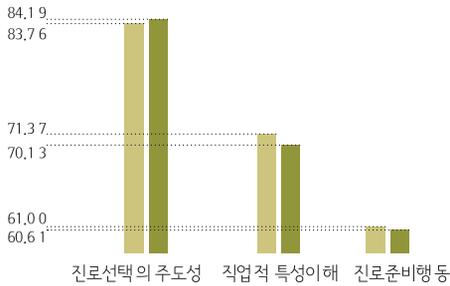
셋째, 시민적 특성의 하위영역 중 인권의식이 평균 77.0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국제화의식(73.60), 건전소비의식(70.98), 국가에 대한 태도(65.75)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의 인권의식과 국제화의식, 건전소비의식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국가에 대한 태도와 공동체의식, 사회참여의식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시민적 특성에 대한 발전전략을 마련할 때 인권의식이나 국제화의식보다는 국가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형성과 공동체의식 함양, 사회참여의식 함양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5) 진로 및 직업 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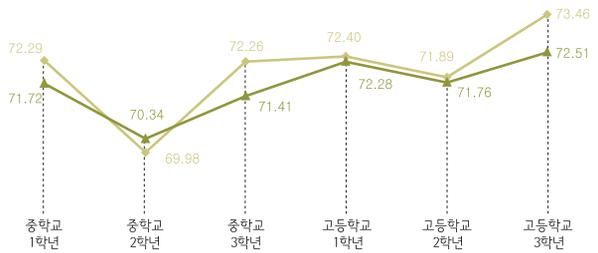
#### ① 진로·직업 역량의 하위차원별, 학년별 및 기타변수별 분석결과

[그림 13] 진로 및 직업역량-하위차원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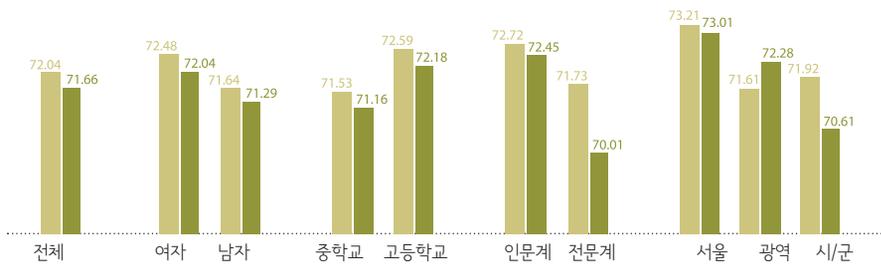
청소년들의 진로·직업 역량이란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태도의 형성과 실질적으로 진로탐색이나 준비를 위해서 하고 있는 노력여부’를 의미한다(한국청소년개발원, 2005). 청소년 진로·직업 역량은 진로 선택의 주도성, 직업적 특성이해 및 진로 준비행동을 측정하는 10개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3] 진로 및 직업역량-하위차원별



[그림 14] 진로 및 직업 역량-학년별



[그림 15] 진로 및 직업 역량-기타 변수별

#### ② 분석결과 요약 및 논의

진로 및 직업역량의 하위 변인들인 진로 선택의 주도성, 직업적 특성이해, 진로준비 행동의 점수를 모두 합한 진로 및 직업역량에 대한 학년별 결과를 살펴보면, 중1(71.72)점수가 중2(70.34)점수 보다 다소 높았으나, 중2부터

고3까지 연령이 증가할수록 지속적으로 점수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진로 및 직업역량에 대한 2008년 기타변수별 결과에서는 여자(72.04)가 남자(71.29)보다 고등학생(72.18)이 중학생(71.16)보다 높았으며, 인문계(72.45)가 전문계(70.01)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역별 분석결과에서는 서울지역(73.01)이 광역시(72.28)나 시/군 지역(70.61)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2007년도 유사한 점수분포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진로 및 직업적 특성의 전체적인 평균점수는 2007년과 비교했을 때 0.38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의 진로탐색이나 진로준비를 위한 노력의 정도가 높지 않으며, 2007년에 비해 오히려 부적진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다양한 특성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일과 직업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탐색하고 입직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들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성별로는 여학생들에 비해 남학생들의 점수가 낮게 나타났으며, 인문계고 학생들보다는 전문계고 학생들의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서울지역 거주 청소년들에 비해 광역시와 시군지역 거주 청소년들의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진로 및 직업적 역량개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보다 더 확대되어야 하며, 상대적으로 여학생과 전문계고 학생, 시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셋째, 진로 및 직업적 특성의 하위영역 중 진로선택의 주도성이 평균 84.19점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지만, 자신의 직업적 특성 이해는 70.13점, 진로준비 행동은 60.61점으로 진로선택의 주도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진로선택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있지만, 자신의 직업적 특성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도 않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진로 및 직업적 특성과 관련된 영역에서는 진로선택의 주도성보다는 직업적 특성이해와 진로준비 행동에 대한 관심이 보다 더 시급히 요청된다.

#### 4. 결론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III의 지표 항목 중 본고와 관련된 결과부문 5개 영역 17개 지표항목에 대한 조사결과에 대한 결론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8년도 청소년 발달지표 조사결과 결과부문 5개 하위영역에 대한 평균점수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예컨대 결과부문의 하위영역에서 진로·직업적 역량만 71.66점으로 다른 영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을 뿐, 다른 영역의 점수들은 모두 60점대에 머물고 있다. 또한 2007년 조사결과와 비교했을 때 정의적 특성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영역에서 평균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2년간의 조사결과로 하락 여부를 논의하기에는 이르지만,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청소년기에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성공적인 성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역량 즉 인지적, 정의적, 사회적, 직업적, 시민적 측면에서의 역량개발에 개선의 여지가 크다는 점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둘째, 청소년 발달지표의 결과부문 5개 하위영역에 대한 학년별 변화추이를 보면 인지적 특성은 중학교 1학년 이후 지속적 증가추세를 보이지만, 사회적 역량과 직업·진로역량, 시민적 역량은 학년증가에 따른 변화가 거의 없으며, 정의적 특성은 중학교 1학년 이후 고2까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발달이란 중대, 진보, 향상 등의 상승적인 변화를 의미한다(이현립·김영숙, 2006). 물론 인간발달의 변화과정이 연령에 따라 감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발달이 진행되는 과정에는 일정한 순서가 있다. 즉, 발달의 이 전단계는 그 다음 단계의 기초가 되며,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이행할 때 보다 높은 차원의 발달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양적인 증대뿐만 아니라 구조와 기능이 정밀해지고 유능해지는 질적인 변화도 함께 일어난다. 이에 기초해볼 때 학년별 차이가 없거나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인간발달의 기본적인 원리에서 볼 때 다소 상충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에는 다양한 논의가 가능하겠지만, 우리나라 청소년 발달의 환경이 열악하거나 보다 고차원적인 형태의 발달을 촉진하는 교육적 경험의 부족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왜냐하면 청소년의 발달적 변화는 성숙과 학습의 상호작용의 산물이며 결과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뛰어난 유전적 소인을 갖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환경이 열악하고 문화적 결손이 심하다면 그의 유전적 소인은 제대로 발휘되기 어렵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교육적 경험을 통해 정의적, 인지적, 사회적, 시민적 및 직업적 역량들이 연령증가에 따라 보다 전문적으로 분화되고,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달될 수 있도록 하는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향후 장기적인 자료 축적을 통해 이에 대한 변화 과정을 좀 더 심층적으로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청소년 발달지표의 결과부문 5개 하위영역에 대한 평균점수가 성별, 지역별, 계열별에 따라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성별 차이를 보면, 남자의 경우 자아개념, 행복감, 문제해결능력의 지표에서 여자보다 높은 점수를 보인 반면, 여자의 경우에는 자기주도학습준비도, 진로선택의 주도성, 인권의식, 사회참여의식에서 남자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청소년역량개발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남자청소년에게는 자기주도학습준비도, 진로선택의 주도성, 인권의식, 사회참여의식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여자 청소년에게는 상대적으로 자아개념, 행복감, 문제해결능력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리고 계열별 차이를 보면, 전문계고 학생들이 정의적, 인지적 특성, 사회적, 시민적 및 직업적 역량 등 모든 영역에서 인문계고 학생들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지역별 비교에서는 대부분의 영역에서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광역시와 시군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보다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발달이나 역량개발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 전문계고 학생들과 서울이외의 광역시나 시군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에 대해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총 17개의 청소년 발달지표 가운데 문제해결능력과 사회참여의식에 대한 평균점수가 상대적으로 다른 지표에 비해 낮다는 점이다. 예컨대 17개의 하위지표 중 평균 70점 이상은 진로선택의 주도성, 인권의식, 국제화의식, 창의성, 건전소비의식, 직업특성이해 등 6개 지표이며, 평균 60점 이상~70점 미만은 자기주도학습준비도, 목표지향성, 국가에 대한 태도, 자아개념, 행복감, 친사회적 기술, 공동체의식, 진로준비행동, 사회적 신뢰 등 9개 지표이다. 그리고 평균 60점미만의 점수를 보인 지표는 문제해결능력과 사회참여의식 등 2개 지표이다. 따라서 청소년발달이나 역량개발에 초점을 맞춘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문제해결능력과 사회참여의식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이현림·김영숙(2006). 인간발달과 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개발원(2005). 청소년개발지표 연구 II.

Carnegie Council on Adolescent Development, (1989). Turning points: Preparing American youth for the 21st century. Report of the Task Force on Education of Young Adolescents. Washington, DC: Author.

Pittman, K. J., and Irby, M. (1996). Preventing problems or promoting development: Competing priorities or inseparable goals?. Baltimore: International Youth Foundation.

# 청소년 정책개발의

# 과학화

유원기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통계조사연구실 연구원



필자가 생각하는 청소년 정책의 목표는 진로(진학, 취업)와 시민사회 구성원 되기이다. 왜냐하면 진로 성취는 성인사회 구성원의 필요조건이며 시민사회 구성원 되기는 성숙한 사회 구성의 충분조건이기 때문이다(이경상, 2008a, 2008b).

이를 실현하기 위한 독립변수로 청소년 정책영역을 크게 보호·복지와 역량강화(자율적인 능력, 창의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력, 의사소통능력, 직업역량, 사회적 역량, 시민적 역량, 예술적 감수성, 문화적 수용능력 등)의 두 범주로 나누고, 다시 세분화하여 보육·보호·복지·인적 자본(건강, 교육, 직업능력, 직업체험활동 등)·사회적 자본(주요 타자들과의 애착, 참여, 기부, 자원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교류활동 등)·문화적 자본(문화예술활동, 문화관련 동아리활동 등)의 여섯 범주로 구분하여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이경상, 2008a, 2008b).

왜냐하면 기존의 여러 연구결과에 비춰볼 때, 보육·보호·복지 외에 인적 자본·사회적 자본·문화적 자본은 청소년의 개인적·사회적 역량강화를 통해 진로성취(학업성취, 취업)와 시민사회구성원 되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독립변수이기 때문이다(Becker, 1964; 장원섭, 1997; 최종덕, 2007; 서진완 외, 2003; 이재훈 외, 2007; 김은정, 2006; 김경근 외, 2007; 변수용, 2006; 백병부, 2007; 김현주 외, 2007).

이 글은 2008년 미래청소년학회 춘계학술대회 '청소년통계체계 구축방향과 과제'의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정책영역	
보호·복지	역량강화
보육 보호(안전, 일탈, 보호권 등) 복지=경제적 자본 (빈곤, 불평등, 생존권 등)	인적 자본(건강, 스포츠활동, 심리, 교육, 사교육, 대안교육, 아르바이트, 직업능력, 직업체협활동 등)  사회적 자본(주요 significant others와의 애착, 참여, 기부, 자원봉사활동, 동아리활동, 교류활동 등)  문화적 자본(문화적 취향, 문화예술활동, 동아리활동, 교류활동 등)
진로(진학&취업)·시민사회	
미래사회	

미래사회 청소년 정책의 목표를 세분화된 정책영역에서 효율적으로 달성하려면 여러 가지 청소년 정책이 낭비없이 효율적으로, 즉, 과학적으로 입안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 정책이 과학적으로 개발·입안되고 시행·평가·수정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청소년 정책의 과학화를 위해서는 인프라, 제도 등 여러 가지 방안들이 갖춰져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청소년 정책의 과학화를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인프라, 제도 등에 살펴보고자 한다.

### 1) 청소년 관련 통계자료의 지속 구축

청소년 정책이 과학적으로 개발되기 위해서는 우선 청소년 관련 통계자료의 지속적인 구축이 필요하다. 청소년 정책의 과학성 및 효율성 제고의 측면에서 신뢰성·타당성·시의성을 갖춘 통계자료의 생산은 아주 필요한 일이다.

청소년관련 통계자료는 보호·복지·인적자본·사회자본·문화자본·진로 등 분야별 실태 및 인과관계 파악을 통해 청소년 거시·미시 정책을 수립·실행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다. 가령, 연령별 인구구조와 청년 실업의 변화추이에 대한 통계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저출산·고령화의 한국 사회에서 미래 성장 동력으로써의 청소년 역량강화가 현 시점에서 매우 필요한 정책과제임을 도출(국가청소년위원회, 2006;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7a)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그 예이다.

수요자별로 보면, 학자들에게는 주로 현실을 분석·진단하기 위

한 기초자료로, 정책전문가들에게는 청소년정책을 만들기 위한 기초자료로, 그리고 현장전문가들에게는 관련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경험적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일반인들에게는 현재 동시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당당한 구성원이자 미래 한국 사회의 중추인 청소년 세대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따라서 청소년관련 통계자료는 각 하위분야별로 촘촘히 구축되어 있어야 하고, 시의적절하게 생산되어야 하며, 신뢰할만하고 타당해야 하며, 접근하여 활용하기가 쉬워야 한다. 신뢰할만하고 타당한 통계자료가 분야별로 시의적절하게 장기적으로 꾸준히 구축되어야만 분석, 정책입안 등이 객관적인 경험적 근거에 의해 과학적으로 그리고 낭비없이 효율적으로 행해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이경상, 2008a, 2008b).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청소년관련 연구, 정책입안, 현장 활동 등 제반 측면에서 오류와 비효율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청소년관련 통계자료의 유형은 행정통계자료, 분야별 정기실태조사자료(반복횡단조사자료 repeated cross-sectional data), 패널조사자료(panel survey data)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행정통계자료는 주로 정부 담당부처·지자체·청소년관련 시설·단체 등 정책전달과정에서 수집하는 통계자료를 말하고, 분야별 반복횡단조사자료는 같은 모집단을 대상으로 서로 다른 표본의 횡단조사를 두 번 이상 실시하여 얻은 자료를 말하고, 패널조사자료(panel survey data)는 같은 모집단의 같은 표본을 두 번 이상 반복 추적조사하여 얻은 자료를 말한다(김영석, 1999; 배규한, 2007; Babbie, 2001).

현재 한국의 청소년관련 통계자료를 이런 유형에 의해 살펴보면, 패널조사자료는 수년전부터 그런대로 잘 갖춰져 온 편이고, 분야별 정기실태조사자료는 불과 몇 년 전만해도 구축이 미비했으나 최근 1-2년 사이에 많이 구축되어 지금은 관련통계자료의 구축이 상당히 많이 이뤄져 있는 상태에 있다.

청소년관련 패널조사자료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청소년패널조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8),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교육중단연구(한국교육개발원, 2008a),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8) 등이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청소년패널조사는 전국 중2 청소년들 3,449명과 초4 청소년들 2,844명 및 그들의 부모

를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진로설정 및 준비, 이탈, 여가 등의 주제로 2003년부터 데이터를 구축해오고 있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8),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는 전국 중학교 3학년생 2,000명, 일반고 3학년생 2,000명, 전문고 3학년생 2,000명과 그들의 부모 및 교사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교육경험, 진로, 직업세계로의 이행에 대해 2004년부터 데이터를 구축해오고 있으며(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8),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교육종단연구는 전국 중학교 1학년생 6,908명과 부모 및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생의 학업성취도, 교육정책효과, 학교효과, 고등교육 기회, 지위획득과정 등을 주제로 2005년부터 데이터 구축을 진행해오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08a). 패널조사 데이터는 청소년들의 직업진로의식, 비행의 변화양상, 여가실태 등 일반 횡단조사에서는 파악이 불가능한 종단적 인과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청소년분야의 패널조사 연구는 필요한 주제에 대해 필요한 연구가 적절하게 진행되어 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구분	생산기관	통계명
패널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패널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종단연구

분야별 정기실태조사(반복횡단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통계청에서 인구주택총조사, 생활시간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가계조사, 사교육비조사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인구현황, 생활시간 현황, 경제활동 현황 등 기초적인 정보를 생산해 자체 통계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통계청, 2008). 그리고 청소년정책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오래전부터 청소년유해환경검측종합실태조사,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자료 등 청소년 보호와 건강에 관한 자료를 생산해 제공하고 있다(국가청소년위원회, 2007; 보건복지가족부, 2007).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수년전부터 인터넷이용실태조사(구, 정보화실태조사)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무선인터넷이용실태조사를, 정보문화진흥원에서 인터넷중독실태조사를 확대하여 시행해오고 있다. 이외에 최근 들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007년부터 청소년가치관국제비교조사를 실시해오고 있고, 2008년부터 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를 실

시해오고 있으며, 2009년에는 취약위기 아동청소년 보호자립실태조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그리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청소년진로직업실태조사, 청소년활동문화실태조사, 청소년인권실태조사 등을 실시해오고 있다. 불과 2년전까지만 해도 정기실태조사 자료가 많이 부족한 상태였으나 지금은 상당히 많은 정기실태조사 자료가 구축되어 오고 있다.

향후 청소년정책의 과학적, 효율적 입안과 실행을 위해서는 패널조사 자료, 분야별 정기실태조사자료, 행정통계자료 등을 장기적으로 꾸준히 구축하여 시계열적인 분석이 가능한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구분	생산기관	통계명
정기실태조사 자료 (반복 횡단조사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인구동태조사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연보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가계조사
	통계청	사교육비조사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연보
	교육과학기술부	PISA
	보건복지가족부	가족실태조사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가족부	국민건강영양조사
보건복지가족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보건복지가족부	흡연실태조사	
보건복지가족부	청소년유해환경검측종합실태조사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실태조사(구, 정보화실태조사)	
한국인터넷진흥원	무선인터넷이용실태조사	
정보문화진흥원	인터넷중독실태조사	
보건복지가족부	청소년가치관국제비교조사	
보건복지가족부	취약위기 아동청소년 보호자립 실태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 진로직업 실태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 활동문화 실태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 인권 실태조사	

## 2) 청소년 통계관리시스템의 구축

다음으로 청소년 정책의 과학화를 위해서는 청소년통계관리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는 청소년통계종합정보DB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청소년통계DB간의 연계부족으로 접근성 및 활용도가 미비한 실정이다. 현행 청소년통계정보자료 제공체제는 통계정보자료 이용시 각 기관별 통계정보DB시스템(혹은 홈페이지)을 개별 방문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게 되어 있어 접근성 및 편리성 부족으로 인해 활용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인적자원관련 통계의 경우에는 흩어져 있는 인적자원 통계정보자료의 접근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07년부터 유관기관끼리 인재통계협력망을 만들어 흩어져 있는 인적자원 통계정보를 한 곳의 홈페이지로 모으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또한 현행 청소년통계정보자료 제공체제는 상당부분 통계정보자료만 제공할 뿐 원자료(Raw Data)가 제공되지 않아 통계 데이터의 활용도가 낮아 정책전문가, 학계전문가, 현장전문가의 2차 분석에 의한 가공정보 생산이 미비하고 수요자의 만족도가 높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청소년통계관리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청소년통계관리시스템의 구축은 청소년통계종합정보DB시스템의 구축과 원자료(raw data)의 일반공개를 통한 데이터 활용도 제고의 두 가지 방안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청소년통계종합정보DB시스템의 구축은 청소년통계정보 이용의 효율화를 위해 아주 중요한 작업이다. 기존의 청소년관련 통계자료, 신규로 구축되는 청소년관련 통계자료 등 청소년 관련 통계정보자료 및 원자료를 한 군데에 모아 통합 제공하는 명실상부한 청소년통계 종합정보DB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책전문가·학자·현장전문가·일반인 등 통계이용자가 쉽게 접근하여 편리하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실태조사 등을 통해 축적된 조사원자료(Raw Data)를 일반에 공개하여 정책전문가들 외에 학계 등 일반 데이터 이용자들의 2차 자료를 활용한 데이터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조사원자료의 일반 공개는 충실한 데이터를 학계 등 일반 데이터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간부분에서 소요되는 제반 조사비용(예산, 인력, 시간 등)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함께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 3) 정책평가 체제의 구축

다음으로 청소년 정책의 과학화를 위해서는 정책에 대한 평가체제를 구축하고 정책평가를 통한 정책 개선을 지속적으로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평가에는 청소년 담당부처 및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정책 평가', '쉼터·문화의 집·수련관 등 시설·기관을 대상으로 한 '시설·기관평가',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각종 프로그램 내용구성 및 프로그램 운영결과에 대한 '프로그램 평가' 등(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7)이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정책 평가를 실시하려면, 우선, 정책에 대한 평가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제도하에서 어떤 시스템으로 평가를 실시할 것인지를 먼저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평가영역별로 적합한 평가모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들 각각의 내용에 맞는 각종의 합리적인 평가지표를 구성하는 것이 아울러 필요하다. 평가모형과 평가지표가 만들어지면 이를 통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평가결과 기존의 정책을 지속해 나가든지 아니면 수정보완해서 계속 시행해 나가든지, 그것도 아니면 기존의 정책을 폐지하고 다른 정책으로 대체해야 하는 지 등 기존 정책에 대한 판단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은 기존의 과학적 연구 및 정책개발(R&D)기능과의 연계를 통해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합리적인 평가는 청소년 정책입안과 집행의 정책 프로세스의 비효율과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 발전시키는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된다.

이상에서 청소년정책의 과학화를 위해서 첫째, 청소년관련 통계자료의 지속 구축, 둘째, 청소년 통계관리시스템의 구축, 셋째, 정책평가 체제의 구축 등이 필요함을 살펴 보았다. 청소년 정책이 신뢰로운 통계자료에 입각해서 통계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속히 입안되고 정책 연구개발기능과의 연계를 바탕으로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수정 과정을 지속적으로 거쳐야만, 낭비없이 효율적으로 정확하 즉, 과학적인 정책이 될 것이다. 그래야만 현재사회의 당연한 구성원이자 미래사회 창조의 주역인 우리 청소년에게는 물론 우리 사회에도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발전의 계기를 제

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참고문헌

국가청소년위원회, 2006, 2020 미래사회와 청소년 연구 I.

국가청소년위원회, 2007, 2007년도 청소년유해환경정착종합실태조사.

김영석, 1999, 사회조사방법론, 나남출판.

김경근, 변수용, 2007, 한국사회에서의 학업성취에 대한 문화자본의 영향, 교육사회학연구, 제 17권 제 1호.

김은정, 2006, 가정의 물적·인적·사회자본과 자녀의 학업성취 사이의 관계 : 사회자본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제3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김현주, 이병훈, 2007,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가족배경, 사회자본 및 문화자본의 영향, 한국인구학 제30권 제1호.

배규한 외, 2007, 청소년학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백병부, 2007, 학업성취와 가정인간자본, 사회자본 및 학생문화자본의 구조적 관계 분석. 제3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변수용, 2006, Cultural Capital, Gender, School Success in South Korea, 제2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보건복지가족부, 2007,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서진완, 박희봉, 2003, 인터넷활용과 사회자본-사이버공동체의 사회자본형성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제12권 제 1호.

이경상, 2008a, 청소년정책의 과제와 실용화 방안, 청험 주최 제 44회 청소년정책 연구세미나 자료집.

이경상, 2008b, 새정부 아동청소년정책의 실용주의적 구현방안에 대한 탐색, 대구한의대 청소년문제연구소, 청소년정책 지역토론회 발표자료집.

이재훈, 김경근, 2007, 가족 및 학교내 사회자본과 학업성취, 한

국교육학연구 제 13권 제2호.

장원섭, 1997, 교육과 일의 사회학, 학지사.

최종덕, 2007, 사회자본 형성을 위한 시민교육의 방향, 시민교육연구, 제39권 4호.

통계청, 2008, 통계청 홈페이지.

한국교육개발원, 2008a, 한국교육중단연구 홈페이지.

한국교육개발원, 2008b, 한국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8,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홈페이지.

한국청소년개발원, 2006, 한국 청소년 행복역량지수 개발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7a,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7b,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조사 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8, 한국청소년패널조사 홈페이지.

Babbie, Earl, 2001, The Practice of Social Research. Wadsworth Group., 고성호 외 역, 2002, 사회조사방법론, 도서출판 그린.

Becker, G., 1964, Human capital,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 ✈ 해외동향 리포트

- 중국 : 청소년 센터 내 특별교육활동에 대한 인식과 정책적 함의
- 일본 :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른 청소년 노동시장의 변화와 대응전략



# 중국 - 청소년 센터 내 특별교육활동에 대한 인식과 정책적 함의

China Youth University for Political Science | Lu De-Ping

## 1. 도입

지난 10년에 걸쳐 청소년 연구가, 조사자, 교사, 정부 관리 그리고 일부 부모까지 청소년의 건전한 발달을 위해서는 당연히 학교 환경을 포함하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점차 깨닫고는 있지만, 청소년 발달을 지원함에 있어 학교가 어디에나 있다는 그 점에 기대서는 안 된다. 때문에 청소년 발달을 장려하는데 있어 방과 후 활동의 역할은 청소년 발달이라는 주제를 다룬 많은 학계 논문에서 전에 없이 강조되어 왔다(Eccles and Gootman, 2002; Larson, 2000 Eccles and Barber, 1999; Barber et al., 2001; Mahoney et al., 2002.)

사회학, 여가 연구, 스포츠 심리학 및 청소년 발달을 통해 특별교육활동 참여가 주는 유익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체계적 특별교육활동은 관련 연구 결과 대부분에서 드러나듯 그렇지 않은 활동의 경우보다 청소년 발달에 보다 분명 유익했다. 체계적이거나 구조화된 활동 참여는 성취, 학교 참여 및 학교 만족을 포함한 학문적 성과와 연관되었다(Eccles and Barber, 1999). 자존심 증가 및 우울증 감소를 포함해 참여와 정서적 조정 간에 연계가 있음이 기타 연구를 통해 나타났다(Barber et al., 2001; Mahoney et al., 2002). 일부 청소년 발달 연구자들이 정기적인 참가일정, 성인 직원에 의한 기능 개발 강조 및 의미 있는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기회처

럼, 청소년의 긍정적 발전에 도움이 되는 특별교육 활동에 적합한 체계적 환경을 조성하는 그러한 특성들을 명시한 반면(Eccles and Gootman, 2002), 일부 다른 학자는 또 구조화된 특별교육활동이나 과도한 일정의 특별교육 활동 배치가 청소년에 많은 부정적 영향을 야기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킨다(Coleman 1961, Mahoney et al., 2005, 2006).

본 논문의 취지는 중국 환경 내의 청소년 발달에 미치는 구조화된 특별교육활동의 부정적 영향과 이점 모두를 평가하는 것이다. 중국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학령에 달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 공공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목적으로 초기에 청소년 센터를 설립했지만, 이들의 공공 이미지는 시장 지향의 경제 발전으로 인해 지난 20년에 걸쳐 크게 변화되었다. 이러한 청소년 센터는 발전하면서 여러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 이유 또한 밝혀져야 한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센터 대부분의 청소년 연구가는 언제나 시설, 공간 및 예산 같은 청소년 센터의 객관적 조건 측면과 관계된 이유만을 고려하는 경향이 있었고 그에 따라 센터 운영의 대상이었던 청소년이 내놓는 반응들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본 논문은 이러한 특별교육활동에 관여하면서 발생한 장점과 부정적 효과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 또는 활동에 대한 평가가 이들 청소년 센터의 전반적 운영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에 고려 사항이 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해야 한다는 가정에 기초한다.

이 글은 2009년 6월 25일 개최된 개원 2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바 있다.



## 2. 방법

### 참가자

9세(초등학교 3학년)부터 14세(중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의 청소년 각각에 대해 N=299, 281, 288, 230, 307, 121)까지 이르는 1544 명의 청소년, 1116명의 부모 (아버지의 경우 N=460, 어머니의 경우 N= 656), 350명의 청소년 센터 강사(전일제 강사 및 시간제 강사 각각에 대해 N=129 및 221), 및 282명의 행정직원(청소년 센터 이사, 행정직원, 기술자 및 물류관리 직원 각각에 대해 N=37, 101, 71, 73)으로부터 도출된 데이터를 유의선출법으로 수집했다. 나이 어린 청소년, 청소년 센터 직원, 청소년 센터 강사 및 부모 각각에 대해 정량조사의 보충으로써 반구조화 면접, 좌담회 및 참여행동 연구 같은 일부 정성법이 활용되었다.

### 기법 및 절차

네 세트의 질문지를 개발하여 2008년 4월 말과 6월 말 사이에 북경(중국 북부), 광둥(중국 남동부), 곤명(중국 남서부), 란주(중국 북서부) 및 우한 (중국 중부 또는 양쯔강 해안)의 중국 다섯 개 도시에 거주하는 제학 청소년, 부모, 청소년 센터 강사 및 청소년 센터 행정직원을 대상으로 이 질문지를 자가보고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이 다섯 도시는 지리적으로 중국의 다섯 도시를 대표한다.

본 논문은 청소년에 미치는 특별교육 활동 참여의 결과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주로 청소년을 다룬 조사 자료 및 비교의 시각에서 본 부모에 관한 조사 자료를 참조해 분석해야 한다. "특별교육 활동 참여 척도의 이점" 및 "특별교육활동 참여 척도의 부정적 효과"가 개발되었고 이것은 청소년의 청소년 센터 특별교육 활동에 대한 참여 결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그 역할을 하였다. 이 두 척도는 또한 공통참조 평가를 위해 부모에 대한 조사에서도 반복되었다.

청소년 센터의 기초적 상황, 특히 정치, 문화, 거주 측면에서의 위치, 정부 후원 예산 및 정규 직원이 주는 장점과 함께 이들 센터의 구조화된 특별교육 활동 시행의 이점은 아마도 청소년의 청소년 센터 특별교육 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쳤던 그러한 상황적 요인을 설명하는데 있어 전일제 및 시간제 강사를 포함한 청소년 센터 행정직원과 강사에 대한 설명적 조사 자료로 상세히 전개될 것이다.

### 독립변수

성별 청소년 센터의 특별교육 활동 참여 및 활동 참여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및 이점과 부정적 영향에서의 청소년 성별 차이를 예측하기 위해 이분 척도(1=남성, 2=여성)가 사용되었다.

학년 5개 도시의 학령에 달한 청소년을 대표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이르는 6개 학년을 평가하고, 이 학년 변수는 청소년 특별활동 참

여 발자취를 예측하고, 청소년 센터에서 실시하는 그러한 특별교육 활동의 참여 결과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측면에서 학령에 달한 청소년으로 구성된 하위 집단 별 반응차이를 평가하기 위한 변수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확인된 거주 유형 이 변수는 "도시"와 "이주민"으로 이분되는데, 이 둘은 시민을 등기 있는 시골 거주민과 도시 거주민으로 분류하는 이중 시스템에 긴밀히 관련된다. 중국에서 지난 20년에 걸쳐 경제 개혁의 결과로 많은 농부가 도시로 이주했고, 그들은 자녀를 그들의 직장이 있는 도시에 입학시켰다. 이러한 자녀의 대다수는 실제로 도시에서 태어났지만, 이들의 거주지 등록은 이중 법적 체계에 의거해 도시 거주민으로 분류되었다(예컨대 많은 도시 거주민에 의해 칭해지는 바와 같이 "이주민"). 이는 그들이 상대적으로 도시 거주민만큼 교육과 복지 같은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변수는 도시의 공공 청소년 센터에서 제공되는 특별교육 활동에 참여할 때 이들 두 집단의 청소년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를 예측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청소년 센터에 대한 기초 지식 (4점 척도: 1=전혀 모름, 4=잘 알고 있음) 이 변수는 4점 척도로 평가되어, 청소년의 청소년 센터에 대한 정보 인식 정도 및 그들의 특별교육 활동 참여와 그러한 기초적 지식의 상관관계를 예측할 수 있다.

청소년 센터에서 제공되는 특별교육 활동의 종류 5개 도시에 소재한 청소년 센터의 이사 및 국립 청소년 센터 연합을 상대로 한 인터뷰를 토대로, 청소년 센터 제공의 다양한 특별교육 활동을 7가지 종류로 분류했고 ("주제별 또는 이념 관련 교육", "과학 교육", "예술 공연", "스포츠", "수작업 및 사회복지", "게임 및 엔터테인먼트", 및 "기능 경시"), 그러한 분류는 사전 검증 피드백을 거치는 내내 청소년 센터에서 근무하는 대다수 청소년 연구가의 동의를 얻었다.

특별교육 활동 참여 "참여" 및 "비참여"의 양분적 범주

를 사용해 청소년 센터의 특별교육 활동 참가 당시의 기초적 청소년 상황을 평가했다.

### 종속변수

특별교육 활동의 이점 15개의 항목 (1. "더 많은 지식과 기능의 획득", 2. "더 많은 동년배와의 유대", 3. "표현능력의 강화", 4. "대인 간 소통 능력의 강화", 5. "자기확신 강화", 6. "보다 효과적인 방식의 시간 조정", 7. "보다 효과적인 학업 수행", 8. "팀워크 인식의 강화", 9. "사회적 책임 인식 강화", 10. "학업 압박의 완화", 11. "애국 의식 증대", 12. "사회적 적응능력 강화", 13. "독립적 일상생활 능력의 강화", 14. "심미적 능력 및 예술 취향의 고취", 15. "스포츠 능력 및 신체 활력의 강화")으로 구성된 척도를 개발해, 이를 신뢰도가 매우 높고(청소년의 경우 크론바하의 알파 = .941, 부모의 경우 = .970) 항목들 간의 관련성(참조. 표 1)이 적절한 청소년 및 부모 모두를 상대로 실시했다.

학업수행에 미치는 특별교육 활동의 부정적 효과 4개 항목으로 구성된 척도(1. "과제할 시간의 감소", 2. 학교 공부에 대한 흥미 감소 3. 시험점수 저하, 4. 학교 공부에 대한 집중력 감소)를 개발해 이를 신뢰도가 높은(크론바하의 알파=.821)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서구 국가와 중국 간의 사회 문화적 차이를 고려해, 서구 학자(Mahoney and Stattin, 2000, Eccles and Barber, 1999)가 개발한 대부분의 조사 기구에서 종종 목격되었던 약물남용, 음주 및 기타 반사회적 행동 같은 비행요인은 검토하지 않았다. 이에 반해, 중국에서 실시된 대부분의 교육 목표는 학교 환경에서든, 가족의 영역에서든 장기간의 국립대학 입학시험의 압박으로 인해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크게 집중되었다. 따라서 청소년의 학업수행에 미치는 특별교육 활동의 그러한 부정적 결과만을 평가한다.

### 3. 결과

#### 참가

청소년 센터가 제공하는 7종류 활동("주제별 또는 이념 관련 교육"의 경우 404/31.2%N/Percentage, "과학 교육"의 경우 390/31.4%, "예술 공연"의 경우 462/36.2%, "스포츠"의 경우 411/32.7%, "수작업 및 사회복지"의 경우 411/32.7%, 382/30.6%, "게임 및 엔터테인먼트"의 경우 514/40.9%, "기능 경시"의 경우 345/27.6%)에 대한 조사 대상의 청소년 참여율이 다소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인상적이다. 대조적으로 5개 도시의 청소년 센터 대부분은 청소년이 접근할 수 있는 풍부한 자원이 관건이다. 먼저 5개 도시의 청소년 센터는 대개 주거지(69.4%), 문화 및 교육이 집중된 지역(58.6%), 및 정치적 중심 지역(자치 도시 차원에서 34.3%, 행정구 차원에서 36.2%)에 위치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필수적인 문화 교육적 지원의 제공 가능성이 높다. 둘째, 대부분의 청소년 센터는 청소년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이 적당히 크고 부대시설이 충분하다(5점 척도로 평가될 때 공간의 경우 M=3.88, 및 시설의 경우). 확실히 청소년의 낮은 참여율을 야기하는 요인은 다방면에 걸쳐 있고 청소년 센터에서 발견된 그러한 이유는 자연스럽게 기타 인과요인과 결합된다. 그러나 청소년 센터에는 청소년의 참여를 방해하고 있는 몇몇 문제점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청소년의 청소년 센터 특수교육 활동 참여를 방해하는 8개의 대표적 이유를 뒷받침하기 위한 평균 비교를 통해 영향요인의 3가지 원인이 밝혀졌다. 하나는 청소년 자체(예. "참여할 시간이 줄어들음")에서 온 것이고, 또 하나는 부모로부터(예. "부모의 비동의") 도출되었으며, 기타 이유들은 청소년 센터에 거의 둘러졌다(예. "그런 활동에 대한 흥미가 줄어들음", "활동에 대해 잘 알지 못함", "참여로 인한 이점이 덜함", "활동에 따른 지불", "활동에 맞는 기능의 불충분") (참조. 표 2)

공공 서비스 재단의 활동을 방해할 것이 분명한 열거

된 열거된 기타 주된 난제에는 "제한된 공간", "혁신적 종류의 활동 감소", "새로운 활동 요소의 감소", "청소년의 참가하고자 하는 동기 감소", "학교의 학업진도와 충돌", "국제적 교신의 기회 감소",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능력이 떨어짐"이 포함된다. 11개 종류의 난제 가운데 지극히 제한적인 예산이 대부분의 청소년 센터가 당면한 최대 문제(86%)였다.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청소년 센터에서는 대개 학교 교육을 학문적으로 확장하는 것에 관계된 다양한 집중 프로그램이나 이익 추구 프로젝트에 의존한다.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청소년 센터 설립 당시의 공공서비스 목표는 본질적으로 이익 추구 목적으로 변모되었고, 이는 많은 상업적 실체가 추구하는 그러한 것과 거의 다르지 않다. 게다가 대부분의 청소년 센터는 시장의 어떤 변화에도 유연적이거나 대응적이지 않고, 그럼으로 인해 활동 및 프로그램 기획에서든, 또는 실행과정에서든 그러한 학업 관련 교육을 담당하는 사기업에 대해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이 크지 않다. 덧붙여, 이들 대부분의 청소년 센터는 관리직 직원과 전일제 강사가 나이는 많으나 배움이 모자란다는가, 전일제 강사와 시간제 강사의 비율이 불균형적이라든가(전일제의 경우 36.6%, 시간제의 경우 63.4%), 교사진 성별 구조에 있어 여교사의 비율이 높다는가(여성 72.5%, 남성 27.5%) 하는 일부 다른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이 모든 요인이 청소년 센터에서 제공하는 특별교육 활동에 대한 많은 청소년의 참여동기나 욕구를 크게 약화시킨 것이 사실이다. 표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학교 과제의 압박에 원인을 돌릴 수 있는 "참여할 시간의 줄어들음"과 같은 이유와 가족 관련 원인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모의 비동의" 같은 이유와는 상관 없이, 거의 주된 이유는 청소년 센터 그 자체("그런 활동에 대한 흥미 감소", "활동에 대해 잘 모름", "참여로 인한 이점 감소", "특별교육 활동 공간에서 너무 멀리 있음", "활동에 적합할 정도로 숙련되어 있지 않음")에 귀착될 수 있다.

청소년 센터의 특별교육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던 청소년

년은 참여한 청소년보다 자신의 학업수행에 미치는 특별교육 활동의 부정적 영향을 더 많이 알고 있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참가한 적 없는 청소년의 활동 참여에 대한 동기부여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ANOVA 검정 후(참조. 표 3), 특별교육 활동에 참여한 이들과의 비교에서, 참가한 적 없는 청소년이 일반적으로 7개의 특별교육 활동 종류(5점 척도, 1=완전히 불찬성, 5=완전히 찬성)에서 기인하는 부정적 영향을 더 강하게 인식한다는 것이 밝혀졌고, 세 개의 지표에 대해서도 유의하게 서로 다른 수준까지 이르렀다. 이런 상황은 또한 국립대학 입학 시험의 주요 목표를 향한 학문적 추구가 학령에 이른 청소년 일상적 삶의 주된 부분이 되었다는 사실을 적절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특별교육 활동 참여는 종종 이런 학문적 추구에 하나의 마찰요인으로 해석되기도 하며 그럼으로 인해 점차 많은 청소년이 거부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중국의 "호구"에 있는) 확인된 주거 종류는 대부분의 특별교육 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ANOVA 검정 결과에 따르면, 활동 참여 기회에 있어, "도시 청소년"과 "이주민 청소년"으로 구성된 하위 집단 간에 큰 차이가 있었다. "스포츠"를 제외하고 기타 6종류의 특별교육 활동과 함께, 도시 청소년은 참여율("주제별 E는 이념 관련 교육"의 경우  $F=24.497$ , "과학교육"  $F=25.938$ , "예술공연"  $F=27.552$ , "수작업 및 사회복지"  $F=6.213$ , "게임 및 엔터테인먼트"  $F=9.200$ , 및 "기능 경시"  $F=7.178$  for,  $p<.05$ )에 있어, 이주민 청소년의 경우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이다. 이런 결과는 사회 불평등의 관점에서 볼 때, 한계선상의 아동(대부분의 이주민 아동이나 청소년을 취약한 집단의 범주에 분류하는 경우)에게서 발생하는 박탈의 형태로써 해석될 수 있다. 즉, 이주민 아동은 도시의 공식 교육 시스템(도시 학교 입학에 미치는 많은 제도적 장애)에서 배제될 뿐 아니라, 공공 청소년 센터가 제공하는 그러한 특별교육 활동처럼 비공식 교육에서도 배제된다.

### 재고된 이점들

이변량 상관분석의 결과와 함께 (참조. 표 4), "예술공연" (ATI3) 및 "스포츠"(ATI4)라는 특별교육 활동의 종류가 갖는 효과는 청소년에 의해 이점 범위에서 가장 광대한 것으로 인식된 반면(무려 14개의 이점이 2종류의 활동과 강하게 상관되었다), "과학교육(ATI2)" 및 "기능 경시 (ATI7)"이 갖는 효과는 기타 종류의 특별교육 활동의 경우보다 그 폭이 더 높았다. 또한 4개 종류의 이점("더 많은 지식과 기능의 획득 (이점1)", "대인간 소통 능력의 강화"(이점 4), "사회적 적응 능력 강화 (이점12)", 및 "심미적 능력 및 예술 취향의 고취 (이점 14)"이 7개 종류의 특별교육 활동에서 기인한 이점으로 간주되었다.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청소년에게 매우 유익한 것으로 평가되었던 활동의 종류는 대부분 참가했던 그러한 청소년과 동일하지 않았고 또한 청소년에게 유리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없다는 사실이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청소년이 대부분 빈번하게 참여했던 활동 종류는 "게임과 엔터테인먼트" (참여율40.9%)였지만, 그 이점 범위는 총 15개의 이점 중에서 유의한 상관 수준에서 10개 종류의 이점으로만 확대되었다. 이런 결과는 청소년에게 있어 흥미로운 특별교육 활동과 이들에게 유익한 활동 간의 적절한 균형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성별, 학년 및 청소년 센터에 대한 기초 지식을 포함한 기타 독립 변수는 상이한 정도로 특별교육 활동 참여의 이점과 상관되었다. 스포츠 능력 및 신체 활력 강화, "애국적 의식 강화" 및 "팀워크 의식 강화"를 제외하고, 여성 청소년은 남성 청소년보다 유의하게 다른 수준으로 이점을 더 강하게 인식했다. ("더 많은 지식 및 기능 획득"의 경우  $F=7.596$ , "더 많은 동년배와의 유대"  $F=14.129$ , "표현능력의 강화"  $F=14.433$ , "대인간 소통 능력의 강화"  $F=16.681$ , "자기확신 강화"  $F=15.894$ , "보다 효과적인 방식의 시간 조정"  $F=7.585$ , "보다 효과적인 학업 수행"  $F=6.492$ , "사회적 책임 인식 강화"  $F=10.245$ , "학업 압박의 완화"  $F=12.548$ , "사

회적 적응능력 강화"  $F=13.640$ , "독립적 일상생활 능력의 강화"  $F=10.930$ , "심미적 능력 및 예술 취향의 고취"  $F=46.729$ ,  $p<.05$ )

다양한 학년에 따른 이점 인식의 차이는 매우 비관적 경향성을 나타냈는데, 이 경우 고학년은 저학년보다 대부분의 이점을 덜 강하게 인식했고 그러한 부적 상관은 무려 7개 종류의 이점의 경우 유의한 수준이 된다. (참조. 표 5) 이 사실은 청소년 센터의 많은 특별교육 활동이 장기간동안 청소년의 유치 능력이 떨어질 것임을 예측한다. 다시 말해 초기의 청소년기 동안 많은 청소년은 특별교육 활동 참여 대신 학업성취로 자신의 임무나 흥미를 전환시켰다. 진짜 문제는 특별교육 활동 참여가 초기 청소년기부터 후기 청소년기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청소년 시기에 걸쳐 지속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고려할 때 그러한 변화가 너무 일찍 찾아왔다는 점이다. 청소년 센터에 대한 정보는 모든 이점 인식과 정적으로 상관되었다(참조. 표 5). 청소년 센터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은 특별교육 활동 참여로 인한 이점을 강력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결과 때문에 청소년 사이에서 청소년 센터에 대한 정보의 전파는 보다 확장되고 더욱 효과적이어야 하며, 이는 그러한 높은 비율의 청소년이 청소년 센터에서 제공하는 특별교육 활동에 왜 참여하지 않았는지를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청소년 센터의 특별교육 활동 참여로 인한 이점 인식과 관련해 또한 청소년과 그 부모 사이의 분명한 의견 차이가 발견되었다. 일반적으로 부모에 의한 대부분의 참가 이점에 대한 평가는 그 자녀가 한 것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참조. 표 6,7). 반면, 부모의 평가는 청소년의 사회 지향적 이점에 대한 인식보다 더 긍정적이었다("사회적 적응능력 강화", "애국의식 증대", 및 사회적 적응능력 강화"). 이런 결과는 부모는 일반적으로 청소년 센터의 특별교육 활동을 청소년만큼이나 유익한 것으로 해석하지 않았음을 반영했고, 그러한 해석이나 이해조차 청소년의 다양한 평가차원과 비교할 때 일부에

만 한정된 차원에 기초한 것이었다. 청소년의 참여는 실제로 재정적 지원과 법적 동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부모와 청소년 사이의 특별교육 활동 참여에 대한 이러한 인식 차이는 청소년의 참여 동기 및 행위를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국립 청소년 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통한 입증 국립 청소년 센터 프로그램 항목에 대해 청소년 및 부모 각각에 의한 평가 또한 청소년과 부모 사이의 큰 견해 차(참조. 표 8)를 적절히 반영했다. 프로그램 항목 선호도에 대한 순위 평가 비교에 따르면 부모의 항목 선택의 관건은 매우 강한 사회 지향성인 반면, 청소년은 유희이나 모험에 긴밀히 관계될 수 있는 그러한 항목을 선호하는 쪽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청소년에게 가장 선호된 일부 항목에는 무엇보다도 "산림체험", "우주체험 실험", "카통 수집"이 포함되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부모에 의해 낮게 평가된 것들이다. 대조적으로 "환경보호 교육", "국가보안 교육" 및 "국가상황 분석" 같은 사회적 지향의 항목은 부모에 의해 매우 높게 평가되었다. 청소년 및 부모 간의 이러한 분명한 차이는 매우 장기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아동의 특별교육 활동 참여에 어느 정도 장애물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 4. 논의 및 정책 함의

우리의 논의가 청소년의 특별교육 활동 참여 상황에 관련해 청소년 센터의 그러한 활동 참여를 통해 인식된 이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긴 하지만, 정책적 함의와 연계된 논의를 통해 보다 심층적인 설명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다.

먼저 국가 및 지방 정부 모두의 재정적 지원으로 설립된 다양한 청소년 센터는 공공재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지만, 실제로 행정직원이 이런 역할에 소극적이었던 것은 주로 예산부족에 그 원인이 돌려졌다. 우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을 가장 많이 참여토록 한

청소년 센터 특별교육 활동의 결정적 요인은 그 활동으로 생길 수 있는 재미와 이점에 있었다. 반대로 이들 요인에 대한 부모의 평가는 청소년의 경우와는 꽤 차이가 있다. 정책 입안자는 청소년이 요구하는 바와 성인 이해관계자의 요구 사이에서 합리적인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 덧붙여 정부가 지정한 일부 이념 관련 교육 활동은 이점과 재미 측면에서 청소년의 선택에 크게 반대되었다. 공공재 서비스의 한 기능으로써 청소년 센터는 저책과 실행 간의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이들 청소년 센터는 청소년 발달에 끼치는 장애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없다.

둘째, 청소년의 학업수행에 미치는 특별교육 활동의 성과가 우리가 조사했던 모든 이점 가운데 가장 불분명했음이 우리의 조사에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에클스, 프레드릭, 바버 그리고 마호니를 포함한 대부분의 서구 학자가 자신들의 연구를 통해 확인했던 것과 상반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사회 문화적 환경에서 나타난 학문적 성취와 특별교육 활동의 상당한 분리성은 특별교육 활동이 청소년 발달에 유익하지만, 청소년 발달의 모든 차원에 반드시 유익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문제를 제기해왔다. 그러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서구 환경이든, 중국 환경이든 청소년은 자신의 사회성과 또래관계의 측면에서 특별교육 활동을 통해 얻은 것이 많았다는 점이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중국의 청소년 발달 정책은 미국과 유럽의 국가의 정책과는 다소 상이한 노선을 걸어야 하며, 중국의 경험은 또 기타 국가의 참고 대상으로 나름의 유용성을 갖는다. 요약하자면, 청소년 발달에 미치는 특별교육 활동의 성과를 과장하거나 폄하하는 태도가 아닌 합리적이고 각 문화에 맞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다.



### 참고문헌

Barber, B. L., Eccles, J. S., and Stone, M. R. (2001). Whatever happened to the jock, the brain, and the princess? Young adult pathways linked to adoles-

cent activity involvement and social identity. *J. Adolesc. Res.* 16: 429-455.

Coleman, J. S. (1961). *The Adolescent Society*. Free, New York.

Eccles, J. S., and Barber, B. L. (1999). Student council, volunteering, basketball, or marching band: What kinds of extracurricular matters? *J. Adolesc. Res.* 14: 10-43.

Eccles, J. S., Barber, B. L., Stone, M., and Hunt, J. (2003). Extracurricular activities and adolescent development. *J. Soc. Issues* 59: 865-889.

Eccles, J. S., and Gootman, J. A. (eds.) (2002). *Community Programs to Promote Youth Development*. National Academy, Washington, DC.

Eder, D., and Parker, S. (1987). The cultural production and reproduction of gender: The effect of extracurricular activities on peer-group culture. *Soc. Educ.* 60: 200-214.

Fredricks J. A. and Eccles J. S. (2005): Developmental Benefits of Extracurricular Involvement: Do Peer Characteristics Mediate the Link between Activities and Youth Outcomes? *J. Youth Adolesc.* 34:507-520

Fredricks J. A. and Eccles J. S. (2006): Is Extracurricular Participation Associated With Beneficial Outcomes? Concurrent and Longitudinal Relations, *Dev. Psychol.* 42:698-713

Holland, A., and Andre, T. (1987). Participation in extracurricular activities in secondary school: What is known, what needs to be known? *Rev. Educ. Res.* 57: 437-466.

Larson, R. W. (2000). Towards a psychology of positive youth development. *Am. Psychol.* 55: 170-183.

Lerner, R. M., and Steinberg, L. (eds.) (2004). *Hand-*

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Wiley, Hoboken, NJ.

Larson, R. W., and Varma, S. (1999). How children and adolescents spend time across the world: Work, play, and developmental op Psychol Bull, 125: 701-736.

Mahoney, J. L. (2000). School extracurricular activity participation as a moderator in the development of antisocial patterns. Child Dev. 71: 502-516.

Mahoney, J. L., and Cairns, R. B. (1997). Do extracurricular activities protect against early school dropout? Dev. Psychol. 33: 241-253.

Mahoney, J. L., Larson, R. W., and Eccles, J. S. (eds.) (2005). Organized Activities as Contexts of Development: Extracurricular Activities, After-School and Community Programs. Erlbaum, Mahwah, NJ.

Mahoney, J. L., Scheweder, A. E., and Stattin, H. (2002). Structured after-school activities as a moderator of depressed mood for adolescents with detached relations to their parents. J. Community Psychol. 30: 69-86.

Mahoney, J. L., and Stattin, H. (2000). Leisure activities and adolescent antisocial behavior: The role of structure and social context. J. Adolesc. 2000: 113-127.

Mahoney, J. L. (2000). School extracurricular activity participation as a moderator in the development of antisocial patterns. Child Dev. 71: 502-516.

Mahoney J.L., Harris A. L., and Eccles J. S. (2006): Organized Activity Participation, Positive Youth Development, and the Over-Scheduling Hypothesis, Social Policy Report, 20:3-31

Youniss, J., Yates, M., and Su, Y. (1997). Social integration: Community service and marijuana use in high school seniors. J. Adolesc. Res.



〈표 1〉 이점 척도에 대한 항목-총 통계

	항목이 삭제 된 경우의 척도 평균	항목이 삭제 된 경우의 척도변이	수정된 항목 과 전체 상관 관계	다중상관 제곱치	항목이 삭제 된 경우의 크론바하의 알파
더 많은 지식과 기능의 획득	54.7666	152.204	0.636	0.446	0.939
더 많은 동년배와의 유대	54.7931	150.353	0.646	0.474	0.939
표현능력의 강화	54.8461	148.506	0.730	0.588	0.937
대인 간 소통 능력의 강화	54.8432	148.162	0.734	0.600	0.937
자기확신 강화	54.8049	148.492	0.734	0.583	0.937
보다 효과적 방식의 시간 조정	55.1031	147.387	0.718	0.557	0.937
보다 효과적인 학업 수행	55.1171	147.673	0.700	0.542	0.937
팀워크 인식의 강화	54.8770	148.217	0.723	0.571	0.937
사회적 책임 인식 강화	55.0052	147.516	0.733	0.591	0.937
학업 압박의 완화	55.0523	148.422	0.642	0.435	0.939
학업 압박의 완화	54.9993	147.763	0.712	0.556	0.937
사회적 적응능력 강화	54.9632	147.593	0.749	0.611	0.936
독립적 일상생활 능력의 강화	54.9566	147.194	0.722	0.566	0.937
심미적 능력 및 예술 취향의 고취	54.8888	149.014	0.660	0.464	0.938
스포츠 능력 및 신체 활력의 강화	54.7570	150.942	0.622	0.398	0.939

〈표 2〉 청소년이 청소년 센터의 특별교육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한 평균 및 중간값

	그러한 활동에 대한 흥미 줄어들음	활동에 대해 잘 모름	참여할 시간의 줄어들음	참여로 인한 이점 감소	특별교육 활동 공간에서 너무 멀리 있음	활동에 따른 지불	부모의 비동의	활동에 적합할 정도로 숙련되어 있지 않음
평균(SD)	2.22(1.91)	2.83(1.55)	3.09(1.48)	2.04(1.25)	2.53(1.43)	2.34(1.43)	2.14(1.42)	2.41(1.41)
중간값	1.9055	2.75	3.18	1.7500	2.33	1.9900	1.75	2.15

〈표 3〉 청소년 센터에서 제공하는 7개 종류의 특별교육 활동 참여 또는 불참여의 부정적 효과에 해당하는 평균 및 표준편차

	예	아니오										
과제 시간의 감소	2.18	2.07	2.05	2.12	2.08	2.13	2.11	2.08	2.04	2.12	2.15	2.06
	(1.29)	(1.2)	(1.21)	(1.23)	(1.24)	(1.23)	(1.21)	(1.21)	(1.22)	(1.23)	(1.27)	(1.20)
학교공부에 대한 흥미 감소	1.76	1.85	1.77	1.84	1.68	1.89**	1.82	1.81	1.81	1.87*	1.81	1.80
	(1.12)	(1.13)	(1.09)	(1.14)	(1.03)	(1.16)	(1.09)	(1.13)	(1.09)	(1.14)	(1.11)	(1.12)
시험점수 낮아짐	1.71	1.77	1.62	1.8**	1.57	1.83**	1.72	1.74	1.63	1.84**	1.55	1.79**
	(1.10)	(10.9)	(1.00)	(1.13)	(0.99)	(1.14)	(1.07)	(1.09)	(0.96)	(1.14)	(0.99)	(1.10)
학교공부에 대한 집중력 감소	1.75	1.77	1.71	1.87*	1.68	1.88**	1.83	1.81	1.74	1.88**	1.7	1.83
	(1.10)	(10.9)	(1.05)	(1.16)	(1.04)	(1.16)	(1.13)	(1.11)	(1.06)	(1.16)	(1.06)	(1.12)

\*=집단 간 차이는 .05 수준에서 유의하다

\*\*= 집단 간 차이는 .01 수준에서 유의하다

(표 4) 참가한 특별교육 활동 종류(ATI) 및 그 이점 간의 이변량 상관

	ATI1	ATI2	ATI3	ATI4	ATI5	ATI6	ATI7	이점1	이점 2	이점3
ATI1										
ATI2	.452(**)									
ATI3	.423(**)	.334(**)								
ATI4	.468(**)	.391(**)	.360(**)							
ATI5	.497(**)	.486(**)	.416(**)	.488(**)						
ATI6	.396(**)	.399(**)	.428(**)	.449(**)	.471(**)					
ATI7	.412(**)	.406(**)	.428(**)	.452(**)	.485(**)	.462(**)				
이점1	.059(*)	.085(**)	.084(**)	.094(**)	.106(**)	.117(**)	.079(**)			
이점2	.066(*)	0.039	.109(**)	.085(**)	.086(**)	.099(**)	0.055	.530(**)		
이점3	0.051	0.034	.106(**)	.113(**)	.082(**)	.058(*)	0.052	.562(**)	.571(**)	
이점4	.060(*)	.078(**)	.145(**)	.103(**)	.102(**)	.118(**)	.122(**)	.501(**)	.563(**)	.647(**)
이점5	0.037	0.045	.142(**)	.092(**)	.059(*)	.087(**)	.077(**)	.523(**)	.495(**)	.628(**)
이점6	0.037	0.019	.091(**)	.092(**)	0.049	.067(*)	0.038	.460(**)	.470(**)	.506(**)
이점7	0.009	-0.027	.070(*)	.068(*)	0.028	-0.003	0.018	.448(**)	.464(**)	.538(**)
이점8	.069(**)	0.044	.099(**)	.111(**)	.076(**)	0.056	0.054	.463(**)	.435(**)	.492(**)
이점9	0.034	0.027	.079(**)	.072(*)	.060(*)	0.055	0.046	.446(**)	.444(**)	.552(**)
이점10	0.040	0.038	.083(**)	0.022	0.056	.086(**)	0.017	.414(**)	.408(**)	.437(**)
이점11	0.035	0.010	0.016	.079(**)	0.037	0.036	0.005	.430(**)	.470(**)	.528(**)
이점12	.062(**)	.069(*)	.108(**)	.072(*)	.059(*)	.077(**)	.058(*)	.472(**)	.460(**)	.543(**)
이점13	0.047	0.031	.114(**)	.092(**)	.090(**)	0.047	0.046	.428(**)	.442(**)	.515(**)
이점14	.075(**)	.070(*)	.212(**)	.090(**)	.092(**)	.135(**)	.113(**)	.437(**)	.438(**)	.486(**)
이점15	.056(*)	0.052	.057(*)	.150(**)	0.054	.093(**)	0.033	.420(**)	.454(**)	.451(**)

\*\* 상관은 0.01수준에서 유의(2-tailed)

\* 상관은 0.05수준에서 유의(2-tailed)

ATI1= 주제별 또는 이념 관련 교육

ATI2= 과학 교육

ATI3= 예술 공연

ATI4= 스포츠

ATI5= 수작업 및 사회복지

ATI6= 게임 및 엔터테인먼트

ATI7= 기능 경시



〈표 5〉 독립변수 간의 이변량 상관 및 특별교육 활동 참여의 이점

	성별	학년	ID 종류	K-청소년센터	이점1	이점2	이점3	이점4
학년	0.031							
R-ID 종류	-0.039	-.123(**)						
K-청소년센터	.108(**)	0.024	-.147(**)					
이점1	.101(**)	0.011	0.036	.179(**)				
이점2	.111(**)	-0.032	0.011	.168(**)	.530(**)			
이점3	.113(**)	-0.019	0.027	.145(**)	.562(**)	.571(**)		
이점4	.111(**)	0.032	-0.013	.203(**)	.501(**)	.563(**)	.647(**)	
이점5	.102(**)	-.053(*)	0.015	.191(**)	.523(**)	.495(**)	.628(**)	.654(**)
이점6	.084(**)	-.098(**)	0.036	.152(**)	.460(**)	.470(**)	.506(**)	.516(**)
이점7	.075(**)	-.134(**)	0.041	.134(**)	.448(**)	.464(**)	.538(**)	.477(**)
이점8	0.047	-0.034	0.009	.141(**)	.463(**)	.435(**)	.492(**)	.517(**)
이점9	.081(**)	-0.027	0.017	.120(**)	.446(**)	.444(**)	.552(**)	.545(**)
이점10	.104(**)	-.066(*)	0.023	.148(**)	.414(**)	.408(**)	.437(**)	.454(**)
이점11	0.038	-.090(**)	0.045	.112(**)	.430(**)	.470(**)	.528(**)	.502(**)
이점12	.102(**)	0.002	-0.018	.170(**)	.472(**)	.460(**)	.543(**)	.596(**)
이점13	.096(**)	-.064(*)	-0.007	.134(**)	.428(**)	.442(**)	.515(**)	.554(**)
이점14	.191(**)	-0.019	-0.046	.200(**)	.437(**)	.438(**)	.486(**)	.492(**)
이점15	-0.005	-.078(**)	-0.004	.152(**)	.420(**)	.454(**)	.451(**)	.439(**)

이점5	이점6	이점7	이점8	이점9	이점10	이점11	이점12	이점13	이점14
.539(**)									
.509(**)	.632(**)								
.521(**)	.561(**)	.564(**)							
.540(**)	.549(**)	.534(**)	.661(**)						
.483(**)	.475(**)	.521(**)	.512(**)	.519(**)					
.494(**)	.559(**)	.498(**)	.553(**)	.608(**)	.497(**)				
.544(**)	.518(**)	.499(**)	.550(**)	.598(**)	.500(**)	.616(**)			
.524(**)	.539(**)	.499(**)	.556(**)	.555(**)	.461(**)	.578(**)	.655(**)		
.519(**)	.501(**)	.480(**)	.475(**)	.468(**)	.452(**)	.454(**)	.564(**)	.544(**)	
.467(**)	.476(**)	.437(**)	.473(**)	.461(**)	.421(**)	.459(**)	.467(**)	.482(**)	.458(**)

\*\* 상관은 0.01수준에서 유의 (2-tailed)

\* 상관은 0.05수준에서 유의 (2-tailed)

R-ID 종류=확인 종류

K-청소년 센터= 청소년 센터에 대한 정보

이점1= 더 많은 지식과 기능의 획득

이점2= 더 많은 동년배와의 유대

이점3= 표현능력의 강화

이점4= 대인 간 소통 능력의 강화

이점5= 자기확신 강화

이점6= 보다 효과적인 방식의 시간 조정

이점7= 보다 효과적인 학업 수행

이점8= 팀워크 인식의 강화

이점9= 사회적 책임 인식 강화

이점10= 학업 압박의 완화

이점11= 애국적식 증대

이점12= 사회적 적응능력 강화

이점13= 독립적 일상생활 능력의 강화

이점14= 심미적 능력 및 예술 취향의 고취

이점15= 스포츠 능력 및 신체 활력의 강화

<표 6>

	더 많은 지식과 기능의 획득		더 많은 동년배 와의 유대		표현능력의 강화		대인 간 소통 능력의 강화		자기확신 강화		보다 효과적인 방 식의 시간 조정		보다 효과적인 학습 수행		팀워크 인식의 강화	
	A	P	A	P	A	P	A	P	A	P	A	P	A	P	A	P
주제별 또는 이념 관련 교육	4.12 (1.06)	3.89 (1.16)	4.13 (1.16)	3.99 (1.09)	4.06 (1.12)	3.94 (1.15)	4.06 (1.15)	3.98 (1.14)	4.07 (1.11)	3.94 (1.19)	3.78 (1.20)	3.59 (1.23)	3.69 (1.21)	3.69 (1.15)	4.05 (1.14)	3.97 (1.14)
과학 교육	4.16 (1.06)	4.03 (1.14)	4.08 (1.18)	4.01 (1.10)	4.03 (1.14)	3.94 (1.16)	4.10 (1.13)	3.99 (1.13)	4.07 (1.12)	4.04 (1.12)	3.71 (1.21)	3.73 (1.19)	3.63 (1.23)	3.82 (1.12)	3.99 (1.18)	4.03 (1.08)
기능 경시	4.16 (1.05)	4.03 (1.12)	4.11 (1.19)	4.07 (1.06)	4.05 (1.15)	4.09 (1.06)	4.19 (1.06)	4.04 (1.10)	4.13 (1.08)	4.07 (1.09)	3.76 (1.22)	3.67 (1.23)	3.72 (1.23)	3.72 (1.19)	4.03 (1.20)	4.02 (1.07)
예술 공연	4.16 (1.03)	4.11 (1.12)	4.19 (1.11)	4.17 (1.04)	4.14 (1.07)	4.14 (1.06)	4.20 (1.03)	4.15 (1.06)	4.23 (1.01)	4.20 (1.03)	3.84 (1.17)	3.75 (1.18)	3.81 (1.12)	3.78 (1.19)	4.08 (1.09)	4.16 (1.02)
스포츠	4.17 (1.02)	4.07 (1.10)	4.15 (1.11)	4.00 (1.13)	4.16 (1.05)	4.02 (1.10)	4.15 (1.05)	4.05 (1.07)	4.14 (1.04)	4.09 (1.10)	3.84 (1.15)	3.72 (1.19)	3.80 (1.15)	3.80 (1.12)	4.11 (1.09)	4.07 (1.04)
수작업 및 사회복지	4.20 (0.97)	4.03 (1.19)	4.17 (1.12)	4.10 (1.08)	4.11 (1.08)	4.09 (1.12)	4.16 (1.05)	4.11 (1.11)	4.10 (1.04)	4.12 (1.10)	3.78 (1.18)	3.77 (1.25)	3.75 (1.17)	3.82 (1.19)	4.07 (1.11)	4.12 (1.11)
게임 및 엔터테인먼트	4.18 (0.99)	4.03 (1.17)	4.16 (1.12)	4.08 (1.10)	4.05 (1.09)	4.05 (1.14)	4.14 (1.06)	4.05 (1.14)	4.12 (1.08)	4.14 (1.09)	3.80 (1.19)	3.71 (1.30)	3.67 (1.23)	3.81 (1.19)	4.01 (1.16)	4.12 (1.08)

A=청소년  
P=부모

청소년에 의한 평균 순위

부모에 의한 평균 순위

<표 8> 국립 청소년 센터 프로그램의  
확인된 항목에 따른 평균 순위의 비교

산림체험	1	18
우주체험실험	2	15
여름 캠프	3	7
야외 생존 훈련	4	5
까뚱 수집	5	20
머리 쓰는 게임	6	8
전자 게임	7	22
다양한 과학 실험	8	2
매체 체험	9	17
작곡 경연	10	6
생물학적 표본 수집	11	11

<표IV 7>

	사회적 책임 인식 강화		학업 압박의 완화		애국의식 증대		사회적 적응능력 강화		독립적 일상생활 능력의 강화		심미적 능력 및 예술 취향의 고취		스포츠 능력 및 신체 활력의 강화	
	A	P	A	P	A	P	A	P	A	P	A	P	A	P
주제별 또는 이념 관련 교육	3.86	3.87	3.83	3.76	3.87	3.88	3.93	3.89	3.92	3.88	4.02	3.93	4.16	4.04
	(1.20)	(1.13)	(1.26)	(1.19)	(1.15)	(1.15)	(1.10)	(1.15)	(1.21)	(1.15)	(1.22)	(1.18)	(1.08)	(1.12)
과학 교육	3.84	3.91	3.82	3.86	3.81	3.91	3.93	3.93	3.89	3.94	4.02	3.99	4.15	4.02
	(1.17)	(1.10)	(1.30)	(1.13)	(1.19)	(1.09)	(1.13)	(1.06)	(1.22)	(1.10)	(1.21)	(1.10)	(1.12)	(1.10)
기능 경시	3.86	3.86	3.77	3.79	3.80	3.83	3.92	3.95	3.91	3.93	4.11	4.03	4.12	4.08
	(1.18)	(1.14)	(1.32)	(1.14)	(1.24)	(1.12)	(1.16)	(1.09)	(1.24)	(1.12)	(1.22)	(1.06)	(1.16)	(1.11)
예술 공연	3.92	3.94	3.89	3.83	3.83	3.92	3.98	4.01	4.02	4.00	4.25	4.12	4.14	4.08
	(1.13)	(1.14)	(1.20)	(1.16)	(1.17)	(1.12)	(1.09)	(1.10)	(1.14)	(1.10)	(1.06)	(1.08)	(1.12)	(1.11)
스포츠	3.92	3.93	3.79	3.89	3.95	3.93	3.95	3.96	4.00	4.00	4.05	3.97	4.31	4.28
	(1.12)	(1.16)	(1.23)	(1.11)	(1.11)	(1.11)	(1.07)	(1.11)	(1.15)	(1.08)	(1.20)	(1.10)	(1.00)	(0.99)
수작업 및 사회복지	3.90	4.00	3.87	3.82	3.87	3.95	3.94	3.96	4.01	3.96	4.07	3.96	4.15	4.09
	(1.11)	(1.08)	(1.18)	(1.19)	(1.14)	(1.11)	(1.07)	(1.14)	(1.11)	(1.16)	(1.15)	(1.17)	(1.07)	(1.22)
게임 및 엔터테인먼트	3.87	3.94	3.88	3.87	3.86	3.97	3.94	3.92	3.91	3.96	4.10	3.95	4.19	4.15
	(1.16)	(1.14)	(1.23)	(1.17)	(1.16)	(1.10)	(1.12)	(1.14)	(1.19)	(1.13)	(1.16)	(1.18)	(1.10)	(1.09)

청소년에 의한 평균 순위      부모에 의한 평균 순위

A=청소년  
P=부모

국제적 교신	12	13
자원봉사 체험	13	9
사회적 사명 경험	14	12
국가 보안 교육	15	4
과학적 도구 설계	16	14
환경보호 교육	17	1
국가 상황 분석	18	3
군 훈련	19	10
시 암송	20	16
오페라 부르기	21	21
춤	22	19

# 일본 -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른 청소년 노동시장의 변화와 대응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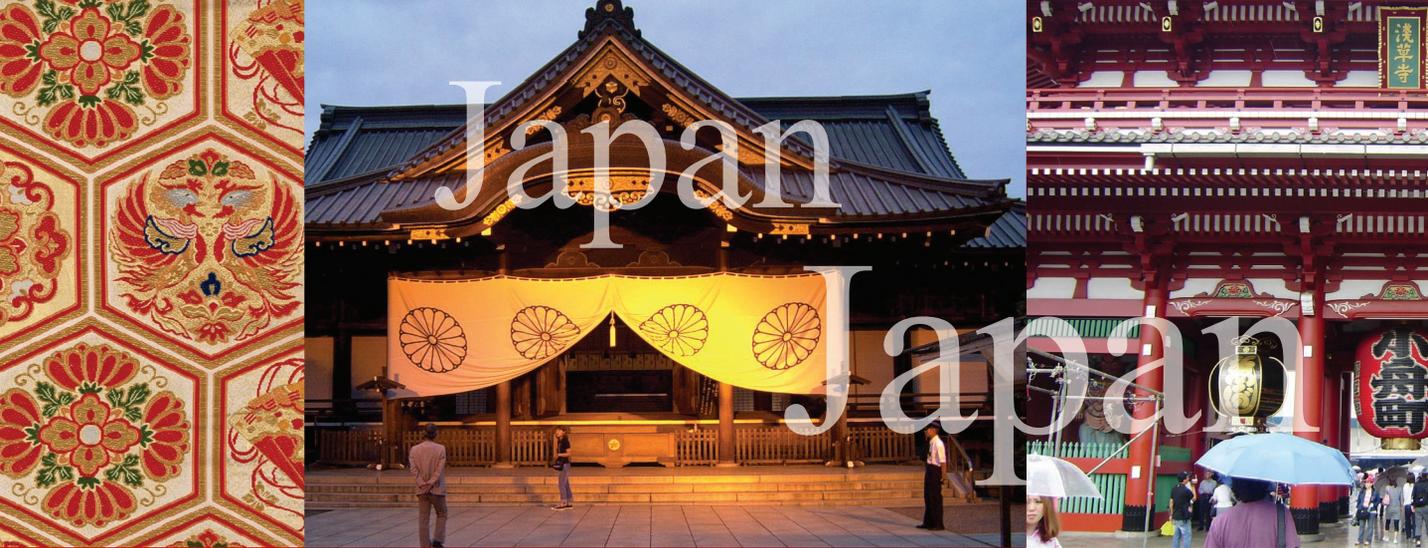
University of Tokyo | Yuki Honda

본 논문은 일본 청소년 노동시장의 변화와 문제점을 논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네 가지 주요 쟁점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첫째로 1990대 초 이후 청소년 고용상황 및 노동조건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이러한 변화와 관련 있는 청소년에 대한 담론을 고찰하고, 다음으로는 일본 청소년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 원인을 설명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고용상황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대응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최근의 일본 청소년 노동시장을 강력한 ‘이중구조(dualism)’ 로 특징지을 수 있는데, 이는 정규직 및 비정규직 노동자간 현격한 차이를 일컫는다. 1990년대 초 이래, 청소년 정규직 노동자는 감소한 반면 청소년 비정규직 노동자는 현저하게 증가해왔다. 이러한 변화는 정규직 및 비정규직 노동자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노동조건의 유례없는 악화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청소년 노동자들의 변화 추세는 ‘프리터(freeter)’ 와 ‘니트족(NEET)’ 이라는 두 키워드로 설명되어 왔다. 이 두 키워드는 청소년 고용문제가 청소년에 기인함을 비난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왔다. 필자는 일본 청소년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 즉, 경제변동과 일본 인구의 불균형한 연령구성의 ‘불행한 조우’, 그리고 경제 세계화에 의한 산업구조의 변화와 노동 수요 같은 ‘되돌릴 수 없는 장기적이며 전세계적인 변화’, 마지막으로 ‘일본 특유의 직업과 교육간 관계’ 라는 최소 세 가지 원인은 인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 청소년 노동시장 내 문제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직업 관련성 증진, 신규 졸업생의 정기적 총괄 신규채용 관행 폐지, 임금 및 직업상 기회에 관한 정규직 및 비정규직 노동자간 차이 축소, 기업 외부의 저렴한 공공직업훈련의 확대 및 졸업생을 포함한 한층 더 광범위한 청소년에게 취업안내 및 상담기회 부여 등 여러 수단들이 요구된다. 이러한 수단을 통해 ‘이중구조(dualism)’ 를 가진 일본 청소년 노동시장은 보다 유동적이고, 공평하며, 공개적인 시장으로 변모해야 한다. 현 상황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개인의 복지(well-being) 및 사회 지속성은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 서론

본 논문은 일본 청소년 노동시장의 변화와 문제점을 논하고자 한다. 동 논문은 네 가지 주요 쟁점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첫째로 1990대 초 이후 청소년 고용상황 및 노동조건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이러한 변화와 관련 있는 청소년에 대한 담론을 고찰하고, 다음으로는 일본 청소년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 원인을 설명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고용상황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대응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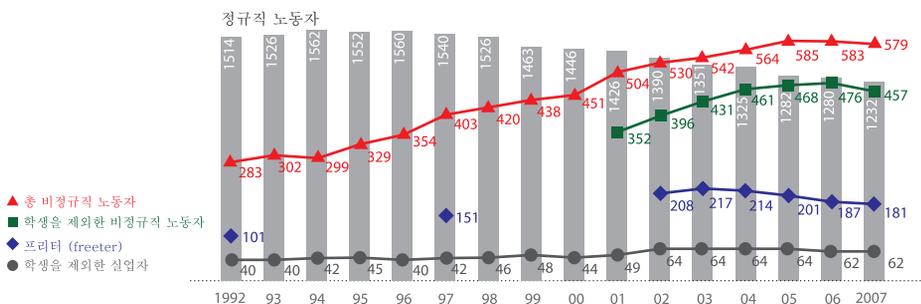
### 청소년 고용 상황 및 노동조건 변화

최근의 일본 청소년 노동시장을 강력한 ‘이중구조(dualism)’로 특징지을 수 있는데, 이는 정규직 및 비정규직 노동자간 현격한 차이를 일컫는다. (OECD 2009) ‘정규직 노동자’는 일생동안은 아니더라도 항구적인, 전임 노동자를 의미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시간제 노동자, 임시직 노동자, 계약직 노동자 및 파견직 노동자로 구성된다. 1990년대 초 이래, 청소년 정규직 노동자는 감소한 반면 청소년 비정규직 노동자는 현저하게 증가해왔다(그림 1). 2007년 15~24세 청소년 노동자의 30%이상이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에 속했다.

이러한 변화는 정규직 및 비정규직 노동자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노동조건의 유례없는 악화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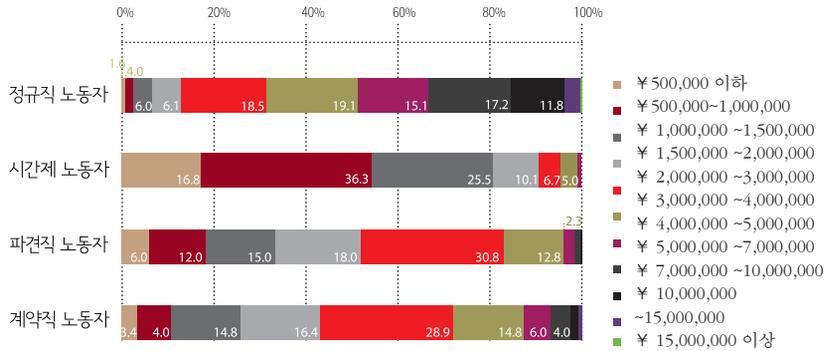
먼저 비정규직 노동자는 명백한 고용불안과 빈곤을 겪는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좁다는 사실은 청소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미래 전망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며 불안과 절망을 증대시킨다. 고용상황이 불안정할 뿐 아니라 임금도 정규직에 비해 극도로 낮으며(그림 2), 청소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부분은 계속 비숙련의 잠재성 없는 직종에 배치된다. 또한 빈번한 이직을 요구 받기 때문에 직장 동료와의 우호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림 1) 청소년 수의 변화(15~34세)



출처: 노동력 조사(Labor Force Survey), 총무성

[그림 2] 총 연령 연간 수입 분포



(출처: 2008년 백서, 후생노동성)

청소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략 3명 중 한 명은 어려운 생활상태에 직면해있지만, 노동문제로 인해 소요사태를 겪은 프랑스와 한국과 비교하면 일본사회는 전체적으로 평화로운 양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단지 현재 많은 일본 청소년 비정규직 노동자가 부모의 수입과 저축에 의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7~80%의 청소년 비정규직 노동자가 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부모의 재정지원은 비정규직 문제를 일시적으로 잠재우고 있으나, 이러한 상황은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이다. 몇 십 년 후 부모세대가 사라지면 저임금 노동자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이들 근로자의 상당수가 ‘공공 생계보호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것 외에는 생계를 유지할 다른 방법이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사회는 머지않아 이 문제와 씨름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에도 부모의 사망이나 부모와의 긴장관계 등으로 인해 부모에게 의지하지 못하는 청소년 근로자는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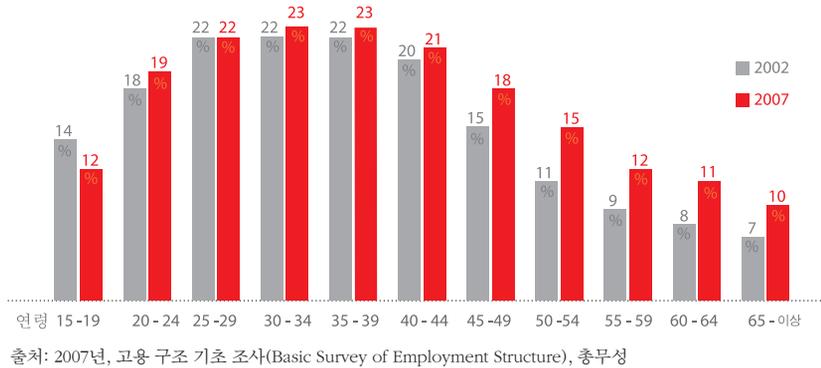
비정규직은 매우 불안하기 때문에 병에 걸려 일주일간 결근하는 경우 일자리를 잃기 쉽다. 이는 특히 어떻게든 소득수준이 매우 낮은 일용직 근로자에게 명백히 나타난다. 이들은 일주일만 일을 쉬어도 집세를 못 내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주거를 상실, 청소년 노숙자로 전락하거나, 매일 밤을 인터넷 카페에서 보내는 ‘네트카페난민(net café refugee)’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정규직도 이전과 같은 특별한 편익이 보장되지 않는다. 1993년부터 2004년까지 10년 동안 정규직 채용이 급감했다. 그 결과 정규직 노동자의 평균 업무량은 증가했으며, 현재는 증가한 비정규직 노동자 관리업무까지 담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업무량과 함께 근무시간도 늘어났지만 [그림 3], 정규직 노동자들은 더 이상 이전 세대가 향유한 근속연수에 근거한 임금상승을 보장받을 수 없다.

성과급제의 도입, 직장 내 고용형태 다변화, 동일 연령군 청소년 채용 감소 등의 많은 문제로 인해 청소년 정규직 노동자들은 점점 더 동료들간 동지애를 느끼기가 어렵다고 토로한다. 대신, 적대적 관계 증대로 인해 정신 건강 문제에 직면하는 근로자들이 증가하고 있다(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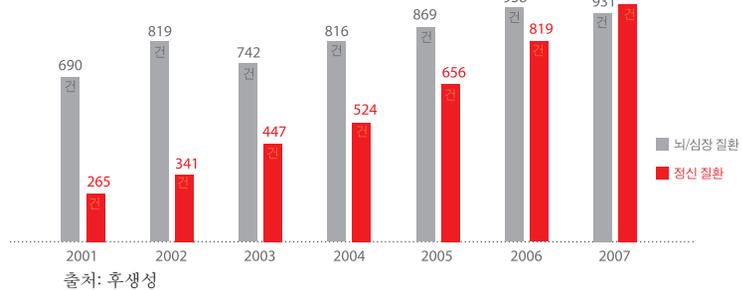
정규직 및 비정규직 청소년 노동자 모두가 대조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이러한 이중적인 상황을 비

유적으로 ‘하얀 지옥(white hell)과 검은 지옥(black hell)의 공존’ 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정규직 및 비정규직 노동자간에는 모순관계가 존재한다. 즉,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완충제 역할을 담당하지만, 동시에 비정규직의 저임금과 고용불안은 정규직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청소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자체가 악순환의 원인인 것이다.

[그림 3] 연령별 주당 60시간 근무하는 남성 정규직 노동자의 비율



[그림 4] 질병 종류에 따른 노동자 보상보험 청구 수



### 청소년에 대한 담론 변화

본 논문은 두 번째로 청소년에 대한 담론이 최근 수십년간 변화해온 방식을 논하고자 한다. 청소년 노동자의 변화 추세는 한 구직광고 잡지 편집자가 고안한 키워드인 ‘프리터(freeter)’라는 용어를 통해 설명되어 왔다. ‘프리터’란 비전속 시간제 노동자를 의미한다. (혼다 2005) 1980년대 말 프리터라는 용어가 부상할 당시에는 ‘활동적이고 자유로운 청소년’이라는 의미를 내포했다. 그러나 1990년대 말에는 프리터는 ‘게으르고 의존적인 청소년’라는 뜻으로 사용되었고, 2000년대 초 본 용어는 그 의미가 ‘병적으로 아무데도 가지 않는 청소년’으로 다시 한번 변화했다. 프리터라는 용어 이미지의 이러한 변천으로 인해, 사람들은 청소년 고용문제가 청소년의 탓이라고 비난했다. 더욱이, 2004년 이래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교육을 받는 학생도 아니면서 구직활동은커녕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사람)’의 머리글자를 딴 ‘NEET(

니트족’ 라는 용어가 일본 전역에 급격하고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혼다 et al. 2006) 일본에서 니트족이라는 용어는 본 용어가 처음 고안된 영국에서 통용되는 의미와 다르게 사용된다. 공식적으로 일본에서 니트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구직활동을 하는 실직상태의 청소년은 그 범주에서 배제된다. 이는 ‘일할 의욕을 결여한 청소년’ 이라는 니트족의 이미지를 유발했다. 대부분의 일본 니트족이 노동자층이나 하류층이 아닌 중산층 출신이라는 통념도 이러한 틀에 박힌 생각을 심화시켰다. 일본에서 니트족은 15세에서 34세의 광범위한 연령군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며, 그 결과 니트족이 엄청난 숫자, 즉 80만 명 이상이라는 추산을 가져왔다. 이는 일본 청소년에 대한 우울한 전망을 심화시켰다.

대중매체는 일본 내 니트족의 부정적 이미지 확산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일본 대중매체가 니트족을 표현하는 방식을 다섯 가지 특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니트족이라는 것을 청소년의 심리학적 문제로 간주한다. 둘째, 학교나 직장에 가지 않고 집에만 머무는 사람을 의미하는 ‘히키코모리(hikikomori)’ 와 니트족 간의 공통점을 강조한다. 셋째, 종종 부모의 책임감을 강조하며, 넷째, 니트족을 패배자로 낙인찍고, 경멸적인 용어로 그 특징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일본 대중매체는 본 상황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을 종종 과학적 근거 없이 단언한다.

니트족이라는 부정적 용어에 대립되는 ‘닌겐료쿠(ningenryoku)’ 즉, ‘인간능력(human competence)’ 라는 용어가 예기된 청소년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다. 1990년대 말 이후, 인간능력이라는 용어는 대중매체 및 정책문서에서 빈번히 사용되었다. 인간능력의 사용은 의사소통 및 문제 해결능력 같은 한 사람의 개인적이고 감성적인 특성과 상호 연결된다.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청소년 문제는 그들의 인간능력을 배양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

그러나 니트족에 관한 경험적 자료는 이와 같은 청소년에 대한 일반적 이해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자료에 따르면, 일할 의지가 없는 청소년로서의 니트족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은 옳지 않다. 대부분의 니트족은 다양한 가족 내외적 활동에 참여하는, 일할 의지가 있거나, 즉각적으로 일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일부 니트족들은 비활동적이지만, 이는 그들의 정신적 문제에만 기인한 것이 아니라 학교 및 직장에서의 괴로운 경험, 중퇴의 경험, 부모의 사망과 같은 사회적 요소 때문이기도 하다. 문제는 니트족이라는 단어가 청소년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확산시킨다는데 있다.

## 청소년 노동 시장 변화의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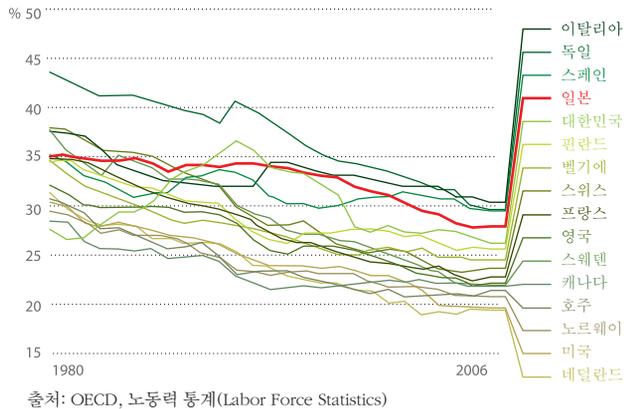
동 논문에서 세 번째로 고찰하고자 하는 것은 일본 청소년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 원인과 기원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세 원인을 살펴보아야 한다.

첫 번째 원인으로서는 경제변동과 일본 인구의 불균형한 연령 구성의 ‘불행한 조우’ 를 들 수 있다. 일본 인구 내에는 거대한 연령 집단이 존재하는데, 한 집단은 1940년대 말에 태어난 1차 베이비붐 세대이고, 다른 한 집단은 1970년대 초 출생한 2차 베이비붐 세대이다. 1990년대 ‘거품경제’ 하에서 일본 기업은 2차 베이비붐 세대의 다수를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거품이 붕괴된 후, 정규직 노동자를 쉽게 정리하고 하지 못하게 하는 판례법으로 인해 이들은 일본 기업의 막중한 부담

이 되었다. 더욱이 1990년대 1차 베이비붐 세대는 50대가 되었고, 그들의 인건비는 최고조에 달했다. 기업에 가중된 이러한 이중고는 기업의 청소년 정규직 노동자 신규 채용을 막고, 기업들이 비정규직 노동자에 의존하게 했다. 오늘날 노동인구의 연령 불균형은 점차 증대되는 실정이다. 하지만, 1970년대 말과 1980년대에 출생한 이른바 ‘잃어버린 세대’의 고용상황과 노동조건은 계속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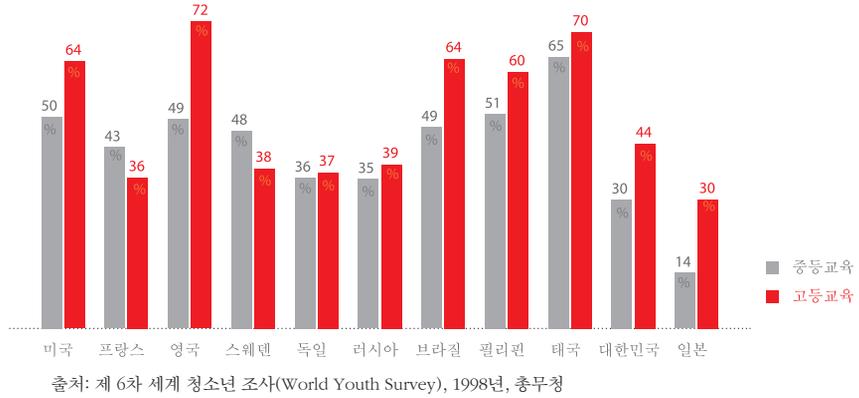
또 다른 근로 형태 변화 이유로는 경제 세계화에 따른 산업구조 및 노동수요 변화를 들 수 있다. 이는 ‘되돌릴 수 없는 장기적이며 전세계인 변화’이다. 모든 선진국은 산업구조를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개편해왔다. [그림 5] 제조업은 양적으로 축소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대량생산체제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로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경향은 값싼 인건비로 ‘적시에’ 동원할 수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수요 확대를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은 계속적이고 점진적 변화는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관찰되는데, 이는 심각한 전세계적 도전과제를 부여한다.

[그림 5] 국가별 제조업 노동자 비율 변화



세 번째 요소인 ‘일본 특유의 직업과 교육간 관계’는 청소년 노동자의 상황을 일층 악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해왔다. 일본 학교는 교육이 직업 요구사항에 부응하도록 하는데 주저해왔으며 [그림 6], 신규 졸업생의 정기적 총괄 신규채용 역시 일본 특유의 관행이다. 학교 교육의 직업 관련성 결여로 인해 청소년은 그들의 시장 가치 및 고용주와의 협상력을 상실한다. 신규 졸업생 정기적 총괄 신규채용 관행으로 인해, 학교 및 대학 졸업과 동시에 구직에 실패한 청소년들은 이후 거의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한다. 필자는 ‘일본 특유의 직업과 교육간 관계’가 변해야 하고, 변화할 수 있는, 가장 시급한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본 논문의 마지막 주제인 일본 청소년의 고용상황 및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 취해야 할 수단으로 이어진다.

[그림 6] 학력별 교육을 통해 직무 능력을 획득했다고 느끼는 청소년의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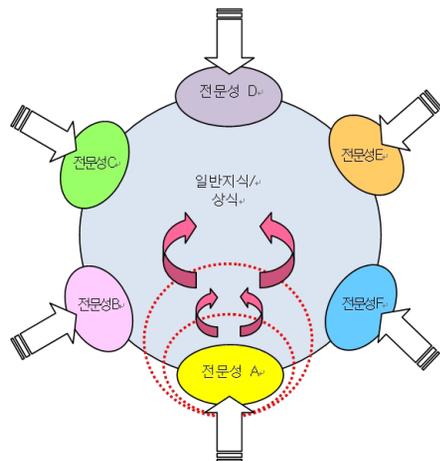


### 필요 조치

‘일본 특유의 직업과 교육간 관계’ 변화 및 일본 청소년의 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여러 조치가 필수적이다.

첫째, 교육이 기업의 직업 요구사항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학교 및 대학의 직업 관련 교육 콘텐츠가 개선되어야 한다. 특히, 일본에 극히 드문 기술전문 고등학교가 신설되어야 한다. 세계 경제 환경 및 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직업관련 교육 콘텐츠는 각각의 전문영역의 틀을 유지하는 동시에 충분한 유연성을 수용하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유연전문성(flexpeciality)’이라는 개념은 교육을 통해 향상된 역량의 이미지를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그림 7] 둘째, 신규 졸업생에게만 개방된 정기적 총괄 신규채용은 지속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사람 및 졸업 후 비정규직 노동자가 된 사람에게도 개방되어야 한다. 정규직 노동자가 될 기회는 적절한 역량, 경험 및 의지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부여되어야 한다. 졸업 직후 정규직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불리하게 대우받는 현 상황은 해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림 7] 유연전문성(Flexpeciality)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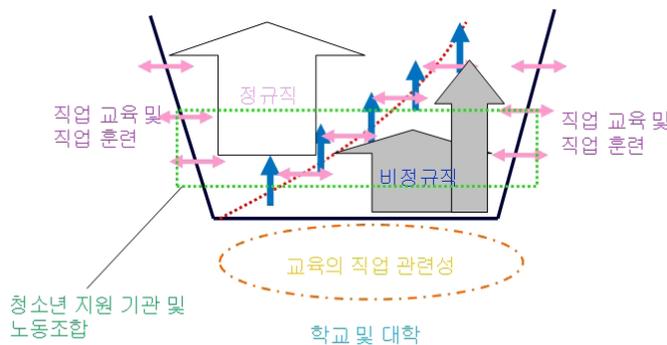
셋째로, 정규직 및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차이는 축소될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그들이 일정 생활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의 원칙에 근거해 적절히 인상되어야 한다. 필자는 정규직 및 비정규직 노동자를 연계하는 과도기적 노동시장 창출을 제안하는 바이다. 예를 들어, 이 과도기적 노동시장은 정규직 노동자에게는 보다 짧은 노동시간을,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한층 더 안정적인 노동조건과 승진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넷째, 더 많은 기업 외부의 직업훈련 기회가 창출되어야 하는 데, 이는 기업 내부 직업 훈련 예산이 최근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규직 노동자조차 더 이상 그들의 직능수준 향상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직업능력 증대 기회가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오늘날 일본에서 매우 한정되어 있는 기업 외부의 보다 저렴한 공공직업훈련 기회가 많이 제공되어야 하며, 가능하다면 실업자 및 일자리가 보장되지 않은 노동자의 경우 훈련자 생활비를 지급하면 좋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다 광범위한 청소년에게 취업안내 및 상담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취업안내 기회는 재학생에게만 한정되었다. 하지만, 오늘날 비정규직 노동자와 실업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 안내 및 상담 기회는 졸업생에게도 개방되어야 한다. 원스톱 서비스(one-stop service)로 다양한 원조와 정보를 제공하는 청소년 지원 기관을 늘릴 필요가 있다. 필자는 노동조합도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청소년 노동자를 지원하고 원조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을 기대한다.

[그림 8]은 일본 청소년 노동시장의 이미지 모델이다. 이 모델은 일본 청소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dualism)’ 문제 해결을 위한 설득력 있는 유일한 해결책인 듯하다. 말할 것 없이 청소년 노동시장의 개혁은 쉽지 않지만, 이러한 사실은 역설적으로 단호한 노력이 시급하다는 것을 더욱 강조한다. 현 상황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개인의 복지(well-being) 및 사회 지속성은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

[그림 8] 청소년 노동 시장의 이미지 모델



참고문헌

Honda, Y., 2005, "Freeters': Young Atypical Workers in Japan," Japan Labor Review, Vol. 2, No. 3.  
 Honda, Y., Naito, A., and Gotoh, K., 2006, "NEET" tte luna! (Don't Say "NEET"!), Kobunsha.  
 OECD, 2009, Jobs for Youth: Japan, OECD.

한국외대부속외고 | 이수빈



# 세상은 청소년 장인들에게 주목하고 있다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  
ANIMATION

선린인터넷고, 한국애니메이션고, 한국관광고, 한국조리과학고, 예일디자인고, 성암국제무역고, 해성국제컨벤션고, 서울로봇고

이름만 들어도 무엇을 가르치는 학교인지를 알 수 있는 **특성화고등학교**들이다.

과거 고등학교는 크게 실업계고등학교와 인문계고등학교로 나뉘었다. 실업계고등학교는 산업계의 우수한 기능 인력을 양성하면서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지만 산업구조의 변화 등의 새로운 환경은 학생들로 하여금 실업계고등학교 진학을 기피하게 만들면서 학생들의 요구와 적성에 맞게 새로운 학교체계를 요구하게 되었다.

**특성화고등학교**란 이름은 이러한 시대의 변화요구에 의해 1998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탄생하였다. 그동안 획일화된 형태의 대규모 고교형태에서 소규모 학급으로 비슷한 적성과 능력을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시켜 기능인을 양성하는 학교이다. 이전의 실업계고등학교가 교육환경 변화에 의해 발전된 형태인 것이다.

어른들한테 예전의 진학얘기를 들어보면 자신들의 재주는 파악하지 못한 채, 오로지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 인문계고등학교를 가야했고, 똑같은 책으로 똑같은 공부를 해야 했으며, 일단 대학은 들어갔지만 선택한 대학전공이 자신이 찾는 전공인지도 알지 못한 채 졸업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극단적인 경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로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오로지 화이트칼라가 되기 위해 공부를 해야만 했던 우리들의 선배들의 모습이었다.

지금도 교육문제에 언급되기만 하면 나오는 말이 **교육의 획일성**이다. 이에 문제 해결로 정부에서는 **고교 다양화**정책을 확대하면서 진학을 목표로 하는 일반계

학교들에게도 다양한 접근방법을 추진하는 것 같다.

기존의 자립형사립고, 외국어고, 과학고, 국제고에 이어 100개의 **자율형 사립고**를 지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인문계고교의 다양화는 특혜시비와 함께 지정되지 않는 일반고의 불만을 야기시켰다. 우수학생들이 사립고 및 특목고로 빠져나가 학교수준이 자연스럽게 저하될 것이 뻔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일반고에 대한 지원정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특색있는 학교 만들기” 선도학교 114곳을 지정해 학교당 교육 프로그램 개발비를 지원하며, 자율고 지정으로 절약되는 예산을 일반고에 지원한다고 한다.

고교 다양화를 통해 학교간 건전한 경쟁을 유발하고 공교육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지정되는 다양한 학교 명칭만 봐서는 교육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전문가 말고는 보통사람들은 학교의 차이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상당한 공부를 해야 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부의 궁극적인 방향이 “다양화와 특성화”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고등학교도 생존을 위해서는 내 학교가 어느 분류에 들어가느냐 보다는 학생들과 부모들이 보내고 싶어 하는 학교가 되기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학실적을 내면서 생존 경쟁력을 키워야 할 단계이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특성화고등학교에 주목해 보았다.

실업계고등학교가 발전된 특성화고등학교는 대학을 갈수 없는 학생들이 일찍 직업세계에 나가게 되는 직업전문학교로 인식되던 과거와는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단순히 기능공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실 예전에 실업계고등학교에 가는 학생들은 가정형편이 좋지 않거나 공부실력이 떨어져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경우는 중학교 때 반에서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던 많은 수의 학생들이 자신의 특기를 살릴 수 있는 곳으로 판단하고 소신있게 지원한다고 한다. 물론 많은 수의 학생들이 일반고보다도 훨씬 우수한 실력으로 대학에 진학하고 있으며, 사립고나 특목고 못지않은 학생들을 배출하면서 미국 주립대등 유명대학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전공분야도 다양해져 1998년 부산에서 디자인고등학교가 처음으로 개교하면서 현재에는 IT분야를 비롯해 영상,디자인,조리,애니메이션,자동차,광고,실용음악,무역,공예,세무,보석가공,골프등 직업종류를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하다.

그중에서도 탁월한 성과로 주목을 받고 있는 학교가 있으니, 정보기술 분야의 선린인터넷고와 애니메이션 분야의 한국애니메이션고는 지속적인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조리학교, 한국디지털미디어고가 대표적인 특성화고등학교들이다. 이 학교들은 대학보다도 우수한 시설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최근 선린인터넷고의 진학실적을 보면 2009년 13명(일본1명 포함), 2008년 16명,2007년 13명,2006년 15명 등 유학반에서 연속 두 자리수의 학생들이 미국 유명 대학에 진학하고 있으며, 각종 올림피아드에서 수상하는 등, 특성화고등학교라고 보기에는 놀라운 결과를 내고 있다.

한국애니메이션고는 2009년 특성화고등학교 중 입시 경쟁율이 최고(6대1)를 기록하면서 인기가 높음을 다시 한 번 실감하면서 쉽게 입학하기도 힘든 학교가 되었다. 국내에서 개최하는 각종 대회는 이 학교에서 단골 수상



기획 및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학생들의 모습



하고 있으며, 해외 대학으로도 꾸준히 진학하면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나는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를 방문하여 교무부장님으로부터 최우수 특성화고등학교로 발돋움 하기까지의 과정과 이유를 들어보기로 했다. 미술선생님이신 윤병권 교무부장님은 학교 설립 때부터 계셔서 그런지 정확한 과거도 함께 해주셨다.

### -한국애니메이션 고등학교를 설립하게 된 배경은 어떻게 되나요?

영화 '쥘라기 공원' 이 처음 나왔을 때, 그 영화 한편이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액보다 더 많은 매출을 냈다고 합니다. 이 같은 문화산업시대에 맞춘 영상, 만화를 이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1998년 9월 김대중 대통령께서 업무보고를 받던 중 경기도청 교육감의 건의에 동의해 만화관련 고등학교를 지어보자고 결론을 내리고 청와대의 협의에 따라 추진되어 설립되었습니다. 이익창출의 상품이 바뀌는 시대가 된 것이지요.

### -그렇다면 학교가 처음 설립되었을 때, 지원자 수가 그리 많지 않았을 텐데 홍보는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사실 저희는 따로 홍보를 하지도 않았는데 애니메이션 고등학교가 세워졌다는 소식은 듣고 일본의 NHK방송사에서 취재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MBC에서도 "만화 같은 만화학교" 라는 제목으로 학교의 모습이 시리즈물로



외국인 교사의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

방영되기도 했었구요. 이 덕분에 홍보가 저절로 돼서 1기 때의 경쟁률이 10대1이나 되었습니다. 처음에 학부모님들이 특목고냐고 많이 질문했으나, 우리학교는 졸업 후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분명한 특성화 고등학교입니다.

- 특성화 고등학교 중에서도 한국애니메이션 고등학교는 경쟁률이 매우 높다고 들었는데 경쟁률이 높은 비결은 무엇인가요?

바로 만화, 영상, 애니메이션이 미래지향적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산업사회가 변해갈수록 이제 상고, 농고의 수요는 줄어들고, 문화가치를 창출하는 영상, 만화, 애니메이션 학과를 진로로 잡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고등학교들과는 달리 학생들에게 규제를 최소화함으로써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편입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분야이지요.

- 특성화 고등학교로서의 교육과정의 특징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우리 고등학교는 학생들을 뽑을 때 내신은 45%정도 반영합니다. 그리고 전공별 시험을 다르게 하여 능력 있고 가능성 있는 학생들을 뽑고 있습니다. 일반 고등학교와 똑같이 국민공통 기본교과를 이수하고 있으며, 다만 본래 가지고 있는 재능을 더 살리는 교과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 이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사고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중요한 텐데 이런 학생들의 상상력과 독창력은 어떻게 불러일으키고 계신가요?

학생들은 수업시간을 활용하여 체험학습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공과 관련된 업체라든지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 같은 전시회에 항상 참가하며, 강풀같은 유명한 만화가들의 특강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도 외부로는 최고라고 알려져 있지만, 내부로는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그런 문제점을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물론 우리학교도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취업을 위해 만들어진 학교이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고졸이라는 학력의 재주 있는 학생들을 받아줄 시장이 부족하다 보니 진학비율이 많아졌고 해외학교 진학을 목표로 공부하는 경향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공분야가 자격증의 없는 과목이고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는 공립학교라서 학교의 선생님들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이동을 해야 한다는 데에 지속성 떨어지게 됩니다.

- 어려운 부분도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배출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떠한가요?

일본이 아무래도 만화와 애니메이션의 선발 국가이기 때문에 일본유학을 많이 가고 있으며, 디자인관련 구미 대학도 진출했습니다. 최근 1기로 졸업한 학생이 디즈니사에 취직도 했구요. 좋아서 하는 일이다 보니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윤병권 교무부장님과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면서 학교 곳곳에 빼곡히 늘어서 있는 학생들의 작품을 한참 구경했다. 학교도 예쁘고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인터뷰전과 달리 부러울 따름이다.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의 목표는 명확한 만큼 자발적인 학습태도와 높은 참여도를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수한 결과를 낼 가능성도 그만큼 높다고 할 수 있다. 일부 사람들은 특성화고등학교가 적성, 진학과 직업,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교육 방법의 대안이라고 까지 성급하게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모든 학교가 다 수준이 높아 만족스러운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며,

우수학교에 몰리는 등의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73곳인 직업형 특성화고를 2010년까지 200개교로 늘린다고 한다. 또한 직업형 특성화가 더욱 특성화된 “한국형 마이스터고”를 2011년까지 50개 학교를 개교한다고 한다. 인문계 고등학교의 특목고가 만들어지듯이 실업계 고등학교의 특목고가 만들어 지는 듯한 느낌이다.

이는 마치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특목고나 자립형사립고등을 들어가기 위해 경쟁하는 모습과 점점 비슷해 질 것이다. 또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취업이 아닌 진학 쪽으로 방향을 돌리면서 대학 진학실적으로 평가받는 경향도 발생하고 있다.

특성화고등학교의 확대는 사회의 변화와 함께 직업교육의 인식이 변하고 위상이 높아지는 현상이라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교육기회를 공정하게 준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게 부족했던 “장인”을 양성한다는 의미에서 보면 더할 나위 없이 필요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본 리포터가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다면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훌륭한 기능인을 **특성인**이라고 부르고 싶으며, 그 특성인이 마이스터가 된다면 시대에 걸맞은 **신시대 장인**이라고 생각한다.



민족사관고등학교 | 이준아

# 노력, 인재가 되기 위한 첫 번째이자 마지막 발걸음

가톨릭대학교  
St. Vincent Cancer and Diabetes Institute

대체(代替). 다른 것으로 바꿈. 새 것으로 대체하다.....

21세기를 대표할 수 있는 단어를 하나 선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주저 없이 '대체'라는 단어를 고를 것이다. 이는 무한 경쟁 시대 속에서 경쟁력 있지 못하면 새로운 것 혹은 더 나은 것으로 순식간에 대체되고 마는 현 21세기의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단어가기 때문이다.

21세기에서는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진다. 음악, 패션, 도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는 그 예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유행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음악의 경우를 들 수 있다. 공중파 음악 프로그램에서는 매 주 가수들의 음반판매량, 음원판매량 등을 모두 집계해서 1위 노래를 선정한다. 선정된 노래는 그 시기에 가장 크게 유행하는 노래로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불려진다. 그런데 과거와 비교해서 사뭇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노래든지 아무리 당시에 유행했더라도 대부분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곡에 의해 그 자리를 뺏기고 만다는 것이다. 그래서 과거 서너 달 정도 유행했을 법한 노래가 현재는 한 달을 채 넘기지 못하고 있다. 음악의 수명이 그렇게 짧아져 버린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유행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수명 또한 점점 짧아지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의 수명이란 자신의 분야에서 한 사람이 인정받으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즉, 특화 분야에서의 자신의 경쟁력이라 할 수 있다. 요즘에는 아무리 다른 사람들로 부터 인정받고 있을지라도 언제 그 명성을 잃을지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더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하루가 갈수록 각 분야로 흘러들어오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사람들은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무엇이든지 쉽게 대체되어버리고 마는 현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이라 한다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전문성'이다. 남들과는 다른,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결코 대체될 수가 없다. 그 사람은 자신

만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남들과 차별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구니시 요시히코라는 한 저자는 자신의 책에서 이러한 말을 했다.

"모든 분야에서 진짜가 아니면 통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무엇이든 한 가지 이상의 진정한 능력을 갖추어라."

바야흐로 21세기라는 전문성과 특수성을 갖추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21세기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이 시대의 인재가 되기 위해 우리 청소년들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아니면 어떠한 마음가짐을 지니고 있어야 할까? 이러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자신 스스로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래서 '특성인과 인재 개발'이란 주제에 대해 좋은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인터뷰하기로 결정했다. 그리하여 결정된 사람이 바로 '김성진 교수'이다.

김성진 교수는 현재 이길여 암 당뇨 연구원장이다. 과학기술 논문 인용 색인(SCI) 논문을 192편이나 발표한 암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이며, TGF-베타 수용체 감소가 암과 염증 질환 발병을 높인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밝혀내었다. 즉, 어느 누구로 대체될 수 없는 21세기형 인재이다. 이분의 말씀을 듣고자 필자는 직접 이길여 암 당뇨 연구원을 찾아갔다.

워낙 바쁘신 분이라 인터뷰 요청을 과연 허락할까 걱정했지만 다행히도 인터뷰를 바로 승낙했다. 인터뷰 이후에 바로 회의를 있는데도 불구하고 필자의 인터뷰를 위해 오전 시간을 내 주신 김성진 교수께 이 지면을 빌려 다시 한 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인터뷰를 하러 연구원에 있는 김성진 교수의 서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인터뷰를 하기 직전에도 바쁘게 서류를 처리하고 계셨다. 순간 이렇게 매사 열심히 하는 태도 또한 21세기 인재가 되는 일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새삼 머릿속을 스쳐갔다.

### 교수님께서 주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저는 현재 암과 당뇨를 주제로 하는 연구소에서 연구소장을 맡고 있어요. 이 곳 연구소에서 미국에서 계속 준비해 오던 암에 대한 연구를 이어서 하고 있지요. 원래 이길여 연구소에는 암 연구소장으로 위임받아 왔었는데 당뇨 연구소장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바람에 제가 암과 당뇨 두 분야를 모두 담당하게 되었어요. 현재 이길여 연구소에는 150여명의 연구원들이 일하고 있어요. 이들과 함께 암과 당뇨 양쪽에 대한 연구를 모두 활발하게 진행하는 것이 현재 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죠. 저 개인적으로는 암 전이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를 통해 암의 전이를 조절하고 암을 치료하고 암을 조기 진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 교수님께서 암에 대해 연구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저는 미국에 있는 동안 미국 국립 암 연구소에서 TGF- $\beta$ 를 연구했어요. 그 후 저는 TGF- $\beta$ 를 23년 동안 계속 연구했지요. TGF- $\beta$ 는 간단히 말해서 암의 전이에 관여를 하는 세포예요. 이에 관해 연구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암에 대한 연구와 연결이 되었지요. TGF- $\beta$ 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TGF- $\beta$ 는 현재 논문 주제 1,2위를 다룰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아주 중요한 연구 주제이지요.

### 현재 교수님께서 하시고 계신 일에 대한 미래전망이 어떠합니까?

현재 제가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것은 TGF- $\beta$ 가 왜 암에 관여하는 지에 대한 것이예요. 즉 염증 질환, 암의 전이, 암의 성장에 어떻게 TGF- $\beta$ 가 관련이 되어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연구가 왜 중요하냐면 TGF- $\beta$ 를 잘 조절하면 암을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고 암의 전이를 막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암에 대한 새로운 치료제 까지도 만들 수 있게 되죠. 더욱이 암 유전체 연구 (Cancer Genetics)를 통해 암을 발생시키는 새로운 단백질을 발견하게 된다면 새로운 진단 방법과 치료법을 개발해 암 치료에 공헌할 수 있기 때문에 암에 대한 연구는 현재나 미래나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개인적인 질문이지만, 혹시 암에 대한 치료제가 언제쯤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현재 암에 대한 연구는 암에 관여하는 단백질을 발견해서 기초 연구를 하고 있는 단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1년 안에 동물 실험이 완료되어야만 연구 결과가 응용되어 실생활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치료제는 아직 더 기다려야 하겠지만 암에 대한 예방책은 그보다는 조금 더 이른 시기에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 교수님께서 현재 일하시고 계시는 연구소의 특징 혹은 특별한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선 저희 연구소의 특징은 암과 당뇨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연구원들을 한 곳에 모아 둔 점에 있어요. 그래서 암과 당뇨 두 분야 연구원들의 팀워크를 통해 각 분야에 대해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연구소는 TGF- $\beta$ 를 연구하는 교수님들을 많이 모시고 있어요. 이러한 곳은 전세계적으로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과학 발전에 도움이 될 결과를 많이 이룩해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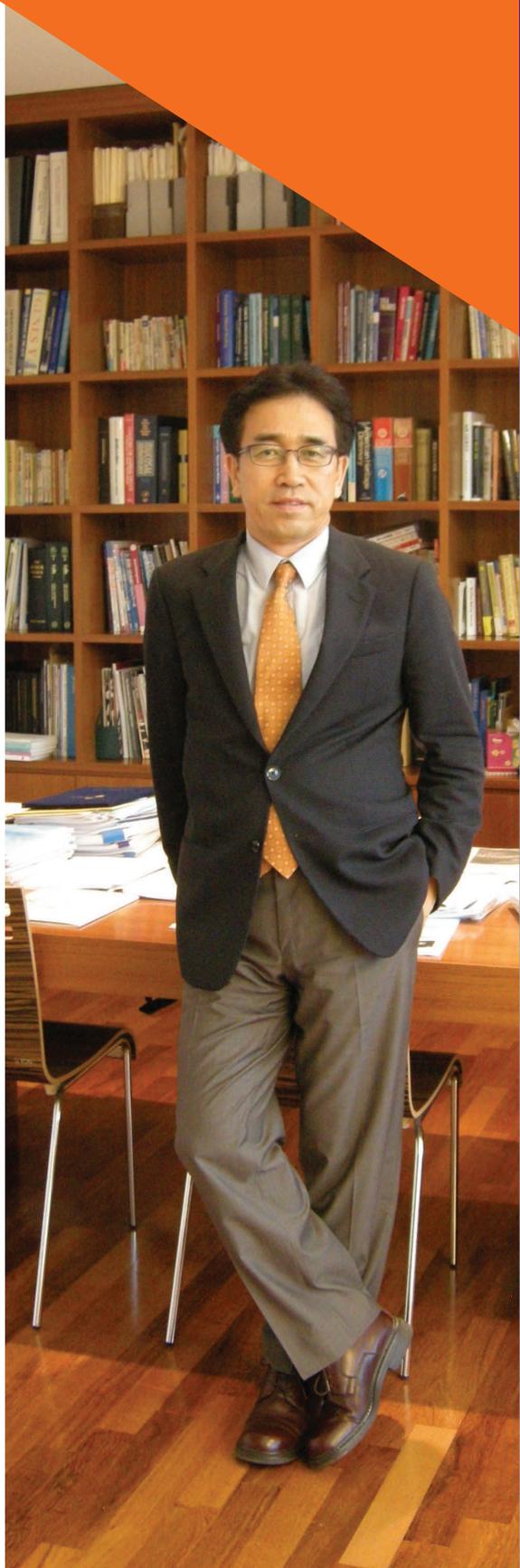
이 저희 연구소는 미국을 제외하고 처음으로 세워진 당노-대사 연구 센터입니다. 현재 저희는 70~80%에 해당하는 정도로 대사 질환에 대해 연구하고 있지요. 마지막으로 저희 연구소에는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동물용 MRI가 있습니다. 더 질 좋은 연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요.

**교수님은 여러 훌륭한 제자들을 양성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제자들의 사례를 비롯해서 그들이 인재로 거듭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에게는 한국과 미국에 여러 명의 제자가 있어요.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굳이 찾아보자면 첫째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찾아서 했다는 것이 예요. 둘째로 저의 제자들은 모두 성공할 수 있는 바탕을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남들보다 10배, 20배로 노력하면서 성실하게 미래에 대해서 준비해 왔지요. 좀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미국 친구들의 경우에는 풍부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을 많이 했어요. 한국 친구들의 경우에는 근면함을 바탕으로 논문을 많이 읽고 실험을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실험 자체에서 그치지 않고 실험에 대한 궁금증을 토대로 열심히 공부했지요.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인재란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하는 인재란 전문성, 즉 자기만의 독창적인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독창성과 전문성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면 굳이 그 사람을 내가 쓸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또한 인재는 다른 사람과 잘 화합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교수님께서도 인재를 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기가 싫은 것을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지 않고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고 공동체 생활을 통해 자기에게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알고 이를 채워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노력들이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아니면 고등학교를 다니는 시기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사회생활을 하는 도중에 인재를 되기 위한 면모를 갖추는 게 매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청소년 여러분들의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느껴요.

그럼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청소년 인재들에게 한 마디 좋은 말씀을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

예전에 아는 사람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제가 여기에 너무 감명을 받아서 청소년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주고 싶습니다. 한 실험에서 8명의 원숭이를 틀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그 틀 안에는 사다리가 한 개 놓여 있고 사다리 끝에는 바나나가 걸려있었어요. 여기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떤 원숭이든 사다리의 반을 올라가기만 하면 위에서 물이 떨어져서 모든 원숭이가 물벼락을 받게 되는 것이었어요. 한 원숭이가 먼저 바나나를 먹으려고 사다리를 올라갔는데 사다리의 반을 올라가니까 물이 쏟아져서 다시 내려왔어요. 2번째 원숭이도 사다리를 올라갔는데 또 물이 쏟아져서 다시 내려왔어요. 그렇게 계속 올라가기만 하면 물이 쏟아지니까 3번째 원숭이가 올라가려고 할 때는 다른 원숭이들이 올라가려고 하는 원숭이를 막 잡아 끌어내리고 때렸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물을 맞으니까 그게 싫어서요. 4번째 원숭이도 사다리에 올라가려고 했는데 원숭이들이 때리니까 결국 어떤 원숭이도 사다리를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험자가 이번에는 새로운 원숭이를 틀에 집어넣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으려 사다리를 올라가려고 하는데 틀 안에 있는 다른 원숭이들이 그 원숭이를 때렸어요. 새로운 원숭이는 이유도 모르고 맞지만 했죠. 실험자가 2번째 새로운 원숭이를 넣어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래서 결국 계속 틀 안에 있던 원숭이나 새롭게 들어온 원숭이나 모두 바나나를 먹지 못하고 쳐다보기만 하는 꼴이 되고 말았지요. 이 이야기가 시사하는 점이 무엇이나면 집단 구성원이 모두 문제의 원인을 모르면서 그저 그 상황에서 제자리걸음만

과학대학

이길여  
암  
당뇨  
연구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숭이들 모두 왜 자신들이 물벼락을 맞는 지 그 이유를 알려고 하기 보다는 그 상황만을 피하기 위해 바나나를 포기하고 사다리를 올라가려고 하지 않잖아요. 즉, 제가 생각하기에 현재 우리 상황이 이와 비슷하다는 거죠. 학생들 대부분이 왜 공부해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목적 없이 공부하라고 강요받고 있지만 하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의 유일한 해결책은 현실에서 뛰쳐나오는 것, 즉 빠른 시기 내에 원숭이가 틀 밖으로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여러분들도 자신을 둘러싼 현실에서 벗어나 자신이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를 찾아나가야 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더 말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그것은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라는 거예요. 도전의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열심히 노력해서 꿈을 버리지 않고 계속 도전한다면 노력에 상응하는 값진 결과가 반드시 나올 거예요. 현재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나라는 중국이에요. 중국은 많은 분야에서 한국을 앞서가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패러다임 쉬프트(paradigm shift)예요. 모든 분야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청소년 여러분들이 도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보다는 도전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발견해 나갔으면 하는 것이 저의 큰 바람입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생각해보니 결국 인재란 노력의 산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전문성이라는 것은 개인이 열심히 노력한 끝에 얻은 하나의 결과물이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정신은 끊임없이 노력하는 개인의 한 면모이기 때문이다. 세상이 필요로 하는 인재가 되는 것에는 왕도가 없는 듯하다. 세상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자신을 갈고 닦고 단련하는 것만이 인재로 거듭나기 위한 유일한 방도일 것이다.

"어떠한 일도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 알의 과일, 한 송이의 꽃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 나무의 열매조차 금방 맺히지 않는데, 하물며 인생의 열매를 노력도 하지 않고 조급하게 기다리는 것은 잘못이다." - 에픽테토스

\* paradigm shift : (방법론 · 철학 등의) 근본적 변화;패러다임[사고틀]의 변화

[출처 : naver 영어 사전]

\* TGF-베타(Transforming growth factor-β)

: 우리 몸의 세포가 증식하거나 염증을 만드는 데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성장조절인자. TGF-베타의 신호 전달과정이 잘못되면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지 못해 암으로 발전하고, TGF-베타 수용체의 유전자가 결손되었을 때 위암은 물론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 등이 발생한다.

[출처 : <http://blog.naver.com/cjk91456?Redirect=Log&logNo=10068404545>]

\* 김성진 박사 약력

강원도 홍천 출신으로 춘성중, 춘천고를 졸업하고 강원대 농화학과를 졸업했다. 봉사 활동 때 성실함을 눈여겨본 일본 수녀의 도움으로 일본 쓰쿠바대학에서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 이후 미국 국립보건원(NIH) 암 유전자 조절연구실장 겸 종신 연구원으로 활약했다. 1996년 이길여 암·당뇨연구원 원장으로 부임했다.

\* 이길여 암·당뇨 연구원

100여 명의 연구원이 기초 의학 연구를 하고 있다. 올 5월 인천 송도국제도시 테크노파크 안에 실험장비 구입과 건물에 670억 원, 연구진 확보 및 실험용 쥐 구입에 340억 원 등 1000억 원이 투입돼 설립됐다.

[출처 : [www.kormedi.com](http://www.kormedi.com)]



## 글로벌 인재양성에 앞서

## 글로벌역량강화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윤철경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은 현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청년층 인적자원 개발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비전 하에 국제적 감각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해외취업을 통해 청년고용을 촉진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국내취업 애로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해외연수를 확대하고 해외취업 연수인원을 확대하여 2013년까지 5만명을 글로벌 청년리더로 양성

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기존에 추진해오던 전문대학생 해외인턴사업 외에 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현장학습을 새로이 추진하는 등 2013년까지 총 3만명을 지원할 계획을 내놓고 있다. 외교통상부 역시 기존에 추진해 오던 대학 졸업자 중심의 2년 과정 장기봉사단 외에 재학생 위주의 1년 과정, 6개월 및 4주 과정 등 중기와 단기 봉사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LG, 현대 등 민간 기업들도 대학생의 봉사활동 등 해외체험에 대한 지원을 늘려가고 있다.

글로벌 교육에 대한 논의가 글로벌 에티켓이나 글로벌 시티즌십 등 교양교육에서 글로벌 인재 육성이라는 인적자원 개발로 전환된 것은 한 걸음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와 기업이 청년층의 취업연수, 인턴, 봉사활동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청년층의 해외체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 또한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글로벌 인재 육성사업이 해외체험 기회로만 그치고 글로벌 일자리에 대한 고용증진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면 이러한 정책목표는 구체성을 상실한 채 정책적 구호에 그치고 말 것이며 개인에게는 시간만 낭비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필자가 작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글로벌 일자리에 대한 인식 및 글로벌 역량 준비실태 조사’에 따르면 한국청소년들의 해외취업의사는 75%에 달했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고등학생이 대학생보다 더 해외취업의사가 높다. 취업희망지역은 미국·캐나다 등 북미지역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유럽, 일본·중국 등으로 이 세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청소년들의 해외취업 희망기관을 살펴보면 국내대기업 해외지사, 외국기업, 국제기구에 60% 이상의 응답자가 몰려 있다. 매우 제한된 취업기회에 많은 청소년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이럴 경우, 청소년들의 해외취업은 막연한 희망에 머무를 공산이 크다.

또 다른 문제는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이에 필요한 외국어(영어, 현지어) 역량을 습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급 글로벌 인재로서의 제한된 기회를 두고 개별적인 경쟁은 치열하나 정작 학교와 대학이 개인들에게 글로벌 일자리에 필요한 교육을 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들이 해외취업을 위해 국가에 바라는 지원은 외국어 학습기회와 경비이다.

세계경제의 글로벌화는 개인들에게 글로벌 일자리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독일은 일찍이 청소년들의 국제적 이동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유럽 청소년이 다국적으로 참여하는 산학협력의 직업훈련프로그램과 청소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해외어학연수와 해외직업훈련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캐나다는 범부처적으로 청소년고용정책에 개입하고 있으며 특별히 캐나다 국제협력단은 해외봉사활동을 통한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청소년고용에 기여하고 있다. 캐나다 국제협력단은 대학생 위주 해외봉사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대학은 활발하게 해외인턴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영어라는 자원과 결합되어 캐나다 청소년의 해외고용을 활성화하고 있다.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학교 외국어교육시스템의 개편이다. 인터넷을 활용한 영어 교육 프로그램, 지역별로 제공되는 전문어학당 교육 등을 통해 학교정규 외국어교육시스템을 개편하여 외국어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직업훈련학교와 전문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해외취업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해외취업에 대한 동기부여와 더불어 외국어교육, 이문화 교육 및 해외인턴십 기회 등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비로소 청소년들을 한국사회의 변방이 아닌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키워낼 수 있을 것이다. ❖




다문화청소년 역량프로그램개발을 위한 국제 세미나 개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원장 이명숙)은 (재)무지개청소년센터(이사장 정세현)와 함께 다문화 가정청소년이 가진 역량을 개발하여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다문화 청소년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8월 25일 한국언론재단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이명숙 원장은 “지금까지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은 주로 다문화 청소년이 처한 어려움이나 문제점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제는 이들이 지닌 다양한 문화적·민족적 배경이 한국의 글로벌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인적자원이라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을 다시 바라보아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내의 학자 및 공무원 뿐 아니라 Carolyn Morris 뉴질랜드 매시 대학교 사회인류학 프로그램 선임강사, Leif Magnusson 스웨덴 다문화연구소 소장 등 외국학자들이 참석, 각국의 다문화가정청소년 역량프로그램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 한국청소년패널데이터 분석방법론 세미나 개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8월 26일부터 28일 3일에 걸쳐 국민대 교육학과 이기종 교수를 초청, 구조방정식과 잠재성장모형에 대한 방법론 세미나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층 세미나실에서 실시했다. 행사에는 본원 연구원 뿐 아니라 구조방정식과 잠재성장모형에 관심이 많은 학계 교수, 대학원생 등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명숙 원장은 인사말에서 “한국청소년 패널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고 관련학계 연구자들의 관심을 제고하고자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 며 향후 이런 기회를 많이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다양성 시대에 특기와 적성을 갖춘 청소년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책무다. 지나친 입시위주의 교육 때문에 많은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적성을 발견하지 못한 채 학업에 매진해 지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특정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특성화 고등학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로봇을 배울 수 있는 로봇고등학교, 애니메이션 전문학교인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등 그 형태도 다양하다. 이러한 특성화 학교들은 청소년들이 가진 다양한 잠재력과 적성을 개발할 수 있다는 면에서 환영할만하다. 이번 호는 특성인(특기와 적성을 갖춘 인재) 양성과 인재개발이라는 주제로 꾸몄다.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소질과 적성을 일찍 발견해 본인들이 원하는 진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매진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빨리 조성되길 기대한다.